금주의 기도

어떤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주님 오심을 기억할 수 있다면 주님 다시 만남을 기대할 수 있다면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음을 고백하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마태복음 2장 6절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12월 19일 (토) 제 1806

□ L. 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 성탄특집 | 발행인 칼럼 ●

변하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탄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비발디의 바이올린 협주곡 사계(四季)는 말 그대로 사계절의 변화무쌍함을 드러낸다. 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선율로서 봄의 따뜻한 별 아래 나른함의 풍경이 전개된다. 물론 그 봄에도 긴박한 위기가 찾아온다. 여름은 어떤가. 작열하는 태양이 온 대지에 쏟아진다. 하늘에서 태양의 빛과 열만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박도 떨어진다. 곡식은 익어가지만 지침과 불안함도 감출 수 없다. 가을은 축제다. 서정적인 가을의 선율에 가을 꽃들의 냄새도 나는 듯하다. 아름다운 단풍의 이름이 낙엽으로 바뀌면서 여기저기 뒹구는 것 같은 쓸쓸함도 가을에 담겨 있다. 겨울은 스산하게 시작된다. 눈 덮인 풍경도 자아낸다. 매서운 겨울바람도 분다.

세상은 계절처럼 변한다. 일년에 네 번이나 변한다. 아니다, 더 빠르게 변한다. 그 누군가가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여행했다가 일년 만에 이 겨울 다시 돌아온다면 "여기는 내가 살던 그곳이 아니야, 내가 다른 곳에 잘못 왔나봐" 하고 다시 우주선에 올라탈 것이다. 변했다. 늘 변하던 세상이 2020년 팬데믹 때에 상상이상으로 변했다. 종교, 정치, 경제, 교육, 사회, 문화, 그리고 일상에서 절망은 더 깊어지고 좌절은 더 넓어졌다. 그 변화의 질주는 멈추어지지 않을 것인데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이 발전적인 것이 아니라 변질적인 것이라는 데 있다.

변하는 세상, 여기저기 둘러봐도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는 세상에 정녕 소망이 있는가. 확실히 있다. 화려한 예루살렘은 아니다. 그곳으로부터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말라. 거기에 세상을 호령하는 헤롯왕이 있었지만 그로부터 올 소망은 없었다. 그는 갈수록 혼란만 가져온다. 고요한 베들레헴을 주목하라. 거기에 세상이 외면한 진짜 왕이 계시다. 인간이 되신 하나님, 성탄의 예수님이 소망이시다. 성탄은 세상을 바꾸는 사건이다. 인류에게 성탄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아주 오래전 누군가로부터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다. 부피는 크지 않은 선물이었다. 곧 열어본다고 하다가 바쁨 속에 선물의 존재를 잊었고 선물은 여러 서류 속에 파묻혀 며칠 째 남몰래 울고 있었다. 선물만 운 것이 아니다. 작지만 값비싼 선물(그 당시 내 형편으론 결코 살 수 없었던 몽블랑 만년필^^)을 주신 분이 더 울고 싶으셨으리라. 며칠 후 내가 그 선물을 안 열어 본 것을 알게 된 그 분의 실망감과 나의 송구함이 교차하던 그 때를 아직도 잊을 수 없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인 성탄을 열어보지도 않고 변하는 세상에서 속수무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 베들레헴 구유에 누인 너무 작은 아이어서 무시하는가. 그 아이에 대해 들어보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사 9:6-7).

놀랍지 않은가. 대단하지 않은가. 한 아기는 추하게 변하는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실 하나님이시요 아버지이시요 왕이시다. 이런 아기가 도대체 인류 역사상 어디에 있었는가. 위대한 성탄의 사건은 베들레헴 구유만이 아니라 낙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과 가정에서도, 절망으로 짓눌린 이 시대의 교회와 세상에도 다시 일어나야 한다. 저 2천년 전 뿐 아니라 지금 이 2020년에도 성탄은 살아있는 이야기이어야 한다. 성탄이란 선물을 언제까지 옆으로 밀어 놓고 살 것인가. 활짝 펼쳐야 한다. 변질을 변화로 바꾸실 분은 성탄의 예수님뿐이시다. 모든 것이 변해 울 기력조차 없는 2020년의 사람들을 기쁨의 사람으로 바꾸실 분은 성탄의 예수님이시면 아주 충분하다.

축 시

2020 성탄, 이 불임의 시대에

시인 이인미
(문화선교원 '시전' 대표)

샛별이 땅에 떨어져 구유에 누우셨네
그 별빛 여전히 온 세상을 비추고

의의 태양이 어두운 마굿간에서 주무시네
그 붉은 의(義)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창조주, 아기 예수
그 본적이 태고인 신성의 아름다움이여 인성의 순수여

몸 입고 와 피흘려 죽음으로 모든 죽음을 살리시네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주 성육신의 놀라우신 은혜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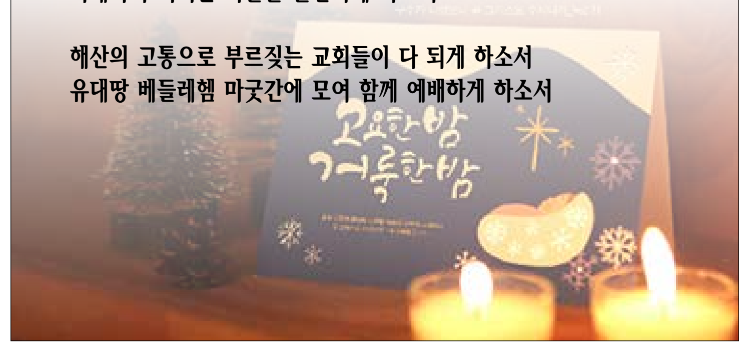
당신의 태어남이 우리의 거듭남이 됩니다
당신의 아기됨이 우리의 장성함이 됩니다

달처럼 아름다운 궁창의 증인들 세워
작은 몸 달빛입술 옹알이시며 만유를 다스리시네

역병의 마스크가 세계를 덮친 2020년
오 아기 예수님, 이 불임의 시대에

교회들이 당신을 잉태하게 하소서
사내아이 이기는 자들을 출산하게 하소서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소서
유대땅 베들레헴 마굿간에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소서



2면
시 론
이동진 목사

3면
성탄특집설교
고택원 목사

11면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
김경일 목사

월 드 미 션 대 학 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 퍼 스 | 온 라 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타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323-737-7699, 800-669-0451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Grove Blvd., Graden Grove, CA 92844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KAPC)에서는 교육부 사역자(목사, 전도사)를 청빙합니다.

자격
- 부르심에 대한 소명이 확실한 분
- 신학대학원(M. div) 또는 기독교교육관련 재학생 or 졸업생

문의 및 접수: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drjho@hotmail.com
(702)296-9193

서류
- 이력서 (사진첨부)
- 자기소개서 및 신앙고백서
- 목사 추천서 2인

서류마감
2021 년 1월30일

조응철 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KAPC)

시 론

한 여자가 사는 법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예수이다. 그러나 그 주인공을 탄생시킨 인물은 산모(産母)인 마리아였다. 어느 날 180도 바뀐 인생을 사는 사람이 가끔 있다. 그러나 마리아와 같은 특별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은 없다. 마리아는 모든 산모들이 아이의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 아기를 낳게 되는 법칙에서 불려나와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를 출산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 마리아는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되었는데,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들려온 그 음성은 이 엄청난 충격을 다 흡수해 나오는 가장 부드러운 소리였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Hail, thou that art highly favored, the Lord is with thee)."

그 소리는 은혜와 평안과 주님의 함께하심을 전해주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경험이 처음인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기 시작했다(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눅1:29).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생각만 했을 뿐인 마리아에게 구체적인 변화의 내용을 전해준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생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주변의 경험상으로도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임신과 출산의 방법으로 전해들은 마리아는 왜 하필 나여야 하는 것일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상황이지만 마리아는 한 가지 대답으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고 변혁의 첫 발을 움직이게 된다. 그 한 가지 대답은 믿음이었다(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눅1:38). 그 후에 마리아의 일생이 어떠했을지는 마리아의 찬가로 알려진 누가복음의 기록(눅1:46-55)을 통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는 그녀의 고백이 일생의 삶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모파상은 단편소설 '여자의 일생'에서 주인공 로잘리의 마지막 대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한다. "인생이란 그렇게 행복한 것도 행복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우리의 삶이 늘 아름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다." 레미제라블 이후 최고의 프랑스 소설로 꼽히는 작품이지만 결국 인간의 경험은 이 정도까지의 고백에 이를 뿐이다.

팬더믹 해라고 불리는 2020년이 성탄과 연말을 앞두고 조용히 그림자처럼 지나가고 있다. 모파상의 '한 여자'가 사는 법처럼 바라보는 인생도 나쁘지 않다. 아니 이런 마음을 통해서라도 위로받고 싶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래도 꽤 위안이 되지 않는가? "나의 삶이 늘 아름다운 것 아니지만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었던 한 해였다"라는 독백.

최근 페이스북에서 한 젊은 여성과 친구가 맺어졌고 포스팅되어 올라오는 그녀의 일상을 보면서 로잘리의 삶보다 마리아의 삶을 발견하면서 흥미로움을 갖게 되었다. 한국의 모교회(母教會)와의 연결고리가 이어져 페이스북 친구로 맺어진 것으로 보이는 이 여성은 아마도 남편과 따로 살고 있고, 네 자녀는 아빠와 함께 타주에서 지내는 것으로 보였다.

〈4면으로 계속〉

코로나시대 성탄절...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간다!

구원과 희망의 원천, 성탄 의미 전달위한 창의적 방법 제시

반짝이는 성탄 장식과 먹을거리, 즐길 거리로 가득한 크리스마스 마켓. 선물을 들고 착한 아이들과 시민들을 찾아온 산타. 올해는 이처럼 들뜬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즐기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세계 곳곳에서 상징적인 크리스마스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됐다. 최근 확진자가 늘어나며 부분 봉쇄조치에 들어간 독일에선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뉘른베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이 취소됐다.

미국의 한 백화점은 159년 동안 이어온 성탄절 산타 방문 행사를 취소했다. 산타가 매장을 방문해 아이들과 만나는 이 행사는 매년 25만여 명의 사람들이 찾아 미국에선 산타의 상징으로 여겨진다. 바티칸의 성탄 미사도 올해는 신도들 없이 진행된다. 매년 12월이면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수만 명이 바티칸 성탄 미사 참석을 위해 로마를 찾았는데, 올해는 온라인 생중계로 대체된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변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기에도 아마도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다. 성탄절은 여전히 교회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교인들이 그 가족과 친구를 초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시기 중 하나라는 것이다. 성탄절을 재조명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는 그 전통을 이어갈 방법을 고려해보도록 한다. 사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많은 가족이 예전처럼 함께 모여서 성탄을 축하할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거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다. 올해 휴가철의 바쁜 일상이 조용해지면서 고립과 외로움이 큰 사회적 이슈가 될 것이다. 이전과 다르게 우리는 아기 예수가 가져다주는 희망을 더 갈망하면서 대강절로 접어들고 있다.

빈 곳을 채우기

예년의 경우 지금쯤이면 주요 건물이나 대형 백화점 앞에 대형 성탄트리가 세워졌고 성탄축하 공연으로 시끌벅적했다. 올해는 교계 차원의 성탄행사 관련 소식도 거의 들리지 않는다. 성탄트리를 설치하는 교회도 잘 안 보인다. 백화점과 대형 쇼핑센터 앞에는 성탄 장식물이 들어섰고 대대적인 판촉행사까지 준비되고 있지만 교회는 조용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거처럼 대규모 축하 모임을 갖고 요란하게 예수 탄생을 맞자는 것이 아니라는 공통된 의견의 반영 같다. 대신 방역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며 오프라인 프로그램은 자제하되 성탄의 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소홀하지 말자는 뜻이다. 성경의 메시지대로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를 드러내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부활이 죽음을 이기고 소망을 확인한 사건이라면 성탄은 그 희망의 원천을 확약 받은 현장이라는 것을 제대로 증거 해야 한다.

전 세계의 교회들은 전염병 기간 책임감 있게 성탄절 전야와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는 새롭고 창의적인 방법을 계획하고 있다.

평상시에 성탄절까지의 기간은, 파티, 요리, 가족 모임 및 여행으로 정신 차리지 못할 정도로 바빴었다. 그러나 올해 많은 사람이 집에서 조용하게 성탄절을 보낼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추세를 역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연합감리교회는 위로와 기쁨이라는 주제로 특별 음악행사, 예배, 묵상, 주일학교 발표회와 함께 성탄절까지 7일 동안 가상 카운트다운 행사를 제공한다.

야외에서

전염병이 닥치기 오래전 미래를 준비하던 많은 교회는 한 번도 교회를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을 초대하기 위해 교회 벽을 넘어서 그들에게 다가갈 방법을 찾고 있었다. 현재 일부 지역의 교회는 코로나바이러스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야외 행사를 한다.

예를 들어, 겨울에 날씨가 온화한 텍사스주, 맥알런(McAllen)의 한 교회는 야외 성탄절 전야 예배를 개최하기 위해 야외 대형 에어 스크린과 프로젝터 등의 장비를 구입했다. 야외에서 모일 때에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모임 규모에 대한 현지 지침을 따르는 것이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야외 모임이 가능하고 안전할 때, 전도의 수단이 되어 여러 분의 교회가 지역사회에 더 잘 알려지고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교회 웹사이트 업데이트

잠재적 교회 방문자들은 실제로 교회를 방문하기 전에 거의 항상 온라인으로 교회를 먼저 확인한다. 여러분의 교회 웹사이트는 지난 3월 이후 발생한 예배 및 프로그램의 주요 변경 사항을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다. 지금은 교회 웹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적기가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의 예배시간과 특별한 성탄절 행사가 교회 웹사이트 대문에 있는지 확인하라. 이것은 또한 성탄절을 지내려는 더 많은 가족이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움의 손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온라인 전도가 가능

"온라인 전도"의 용이함과 편안함은 왜 많은 교인이 온라인 예배에 더 많이 참석했는지를 설명해준다. 소셜 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은 사람들이 교회가 온라인에서 하는 일에 대해 열정을 갖고 공유하는 자연스럽고 자발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이는 누군가를 직접 교회 예배에 초대하거나 하나님이나 교회에 대한 대화를 시작하는 것만큼 무섭지 않다.

〈4면으로 계속〉

우리에게 찾아오신 아기 예수님처럼...
온라인예배 드려 가족중심 행사와 통합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설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치의학 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 치아이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323)665-0009(대표) (213)674-7982
· E-mail :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자는 아래 요령과 같이 지원하여주시기 바라며, 모든 서류와 시험은 한글과 영어 중 편한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목사 학력 및 자격고시

응시자격
본 총회 직영 신학교 및 총회가 인준한 정규 신학교 M Div 학위를 졸업하였거나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졸업 예정자로개혁주의 신앙의 투철한 무흠입교인으로서 확실한 소명과 영적지도력을 가진 분.

고시과목
a) 필기고시: (1) 교회사 (2) 조직신학 (3) 미국장로교회사 (4) 헌법 (이상 4과목)
b) 제출고시: (1) 구약주해 (2) 신약주해 (3) 논문 (4) 설교원고 (이상 4편)

제출 고시 내용
(1) 구약주해 : 창22:1~19
(2) 신약주해 : 마5:1~12
(3) 논문제목 : 온라인 예배에 대한 개혁주의 견해를 논하라
(4) 설교본문 : 약5:7~11 / 암8:11~14
ⓐ 설교 원고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것.
ⓑ 고시 기간 중 설교실기고시를 치름.
(5) 제출 고시 과목에 관한 요령
* 표절은 절대 용인되지 않습니다!!! 주해 및 논문은 아래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한부는 인쇄하여 제출하고, 한부는 PDF 파일로 서기에게 이메일 할 것.
ⓐ 레터 (8-1/2" x 11") 용지를 사용 할 것.
ⓑ 한글 11호 크기의 폰트 사용, 줄 간격 180%, 여백은 1인치, 페이지 번호 포함 할 것. (영문 Times New Roman 12호 Double Space)
ⓒ 논문과 주해는 각각 25매 내외로 작성(겉장과 참고서적 제외)하며, 설교 원고는 30분 분량의 원고 (10매 정도).
ⓓ 논문과 주해는 논문 작성 원칙에 따를 것이며 인용구는 각주를 사용 하고 참고서적을 꼭 포함 할 것.
ⓔ PDF 파일을 보낼 때는 이메일 제목에 본인이름을 넣고, 파일이름에 본인이름 및 과목 주제 이름을 사용 할 것. (예: 조성훈구약주해.pdf)
ⓕ 파일이 너무 크면 나누어서 이메일로 보낼 것.

c) 면접고시

서류제출요령
a) 모든 응시 서류 및 제출고시 과목 원고는 2021년 3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함. 2021년 3월31일 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것은 유효함. 그 이후는 접수하지 않음.
b)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c) 합격자 발표는 45회 총회기간(5월 18일~21일) 중에 총회 석상에서 합격자 발표와 합격 증서 수여함.

고시일자 및 장소
a) 일자: 2021년 5월 11(화) - 12(수)
b) 장소:
동부: 퀸즈장로교회(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of Queens, 김성국 목사)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서부: 대흥장로교회(Dae Hung Korean Church, 권영국 목사)
15411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응시서류
a) 대학교 및 신학교 졸업 증명서 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30일 포함) 졸업예정 증명서, 학교장 확인서 중 1부.
b) 신학교 전 과정 성적증명서 1부
c) 소속 노회장 추천서 1부
d) 소속노회 목사후보생 증명서 1부
e) 이력서(약력과 자세한 신앙력을 기재해야 함. 예를 들면 세례 년도와 교회, 세례집행자) 1부
f) 명함판 사진 2장
g) 고시료: $100 (USD) Pay to the order of - KAPC

참고사항
a) 고시생은 고시부 서기 송일용 목사에게 연락하여 시험기간(5월 11일-12일 총회고시장소) 중에 사용할 숙소를 예약 할 것.
b) 고시당일 노트북 컴퓨터를 사용하여 고시를 볼 수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지킬 것.
(1) Word Process 이외의 모든 program은 고시장소에 들어오기 전에 지울 것.
(2) 시험 중에는 화면을 절대로 바꾸지 말 것. 허락 없이 화면을 바꾸면 퇴장 당함.
(3) 프린터는 제공되지 않으므로 본인이 책임지고 준비 할 것.

제출처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Rev. John Y. Song)
주 소 : 1641 W. 185th St. Gardena, CA 90248
전 화 : (818.282.0112) / 이메일 kapcpastor@gmail.com

기타문의
a) 고시부 부장 : 김재호 목사 (Rev. Kim Jae Ho) ezrakim59@gmail.com (C) 646.270.5987
b) 고시부 서기 : 송일용목사 (Rev. John Y, Song) kapcpastor@gmail.com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
Korean American Presbyterian Church

총 회 장 : 조문휘 목사
서 기 : 이준우 목사
고시부부장 : 김재호 목사
고시부서기 : 송일용 목사

성/탄/절 /특/집/설/고

성육신의 메시지(The Message of Incarnation)

요한복음 1장 10절-16절

고택원 목사
(새한장로교회)

한 해가 저물기 직전에 있는 크리스마스시즌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에게 고정시키고(Fix our eyes on Jesus)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Fix our thoughts on Jesus)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전에 유럽의 한 유명한 신학자가 미국의 유명 신학교에 와서 학생들과 교직원 앞에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의 후에 한 학생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박사님, 박사님은 하나님이 다른 종교를 통해서는 자신을 계시하시지 않고 오직 기독교를 통해서만 자신을 계시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에 박사님은 큰 소리로 "아니요, 하나님은 기독교를 포함하여 그 어떤 종교를 통해서도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셨습니다(No, God has not revealed Himself in any religion including Christianity)"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천천히 그리고 조용히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 하셨습니다(He has revealed Himself in His Son, Jesus Christ)"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완벽하게 계시하셨습니다.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했습니다. The Word became flesh(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되심'(became)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성육신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성탄의 최고 메시지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육신(Incarnation)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첫째는 임마누엘(Immanuel)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성탄의 최고 메시지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창조사건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드신 것만큼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되어 그 피조세계에 오시고 그 피조물과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귀족들은 천한 신분의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인우월주의자들은 유색인종과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인간은 그 본질부터가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기에는 너무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영광스런 왕궁의 침대에 뉘이셔도 그곳이 추하게 느껴지실 텐데 그분은 비천한 마구간 말구유에 뉘이셨습니다. 그 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에 가장 부요하게 사셔도 부족하실 텐데 머리 둘 곳 없이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한 가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창28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으로 도피하는 길에 누워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형의 낯을 피하여 외롭게 도피하고 있는 야곱에게 얼마나 위로를 주는 말씀이었겠습니까? 그때 야곱은 하늘과 땅이 맞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땅에 있는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늘이 땅과 함께 있으려고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진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로 오시어서 사람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인간존재에 관한 모든 절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시고 나는 홀로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 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나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슬픔이 그분 안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나의 눈물이 그분 안에서 웃음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이 그분 안에서 강함으로 바뀌고 나의 가난이 그분 안에서 부요함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평안이 나의 평안 되어 내 가슴에 스며들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 나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죽을 몸이 그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고 소망 없던 내가 그 분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임마누엘의 비밀이요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둘째는 케노시스(Kenosis)입니다.

그분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비워(kenosis)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성육신은 자기를 비우심(made himself nothing)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순종, 섬김, 겸손, 수욕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십자가의 죽음에서 절정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섬김과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며 하나님께 순종의 극치를 보여주며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며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때문에 바울은 자기를 가리켜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고 했습니다.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보다도 더 작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비방해도 대항하지 않았고 대신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았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 반목 시기 질투 미움 같은 것들은 인간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그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에 교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시기도 질투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연말연시가 되면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하여 외롭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보면 그런 일도 사치스런 일에 속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소외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저들 속에 들어가 함께 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병든 자, 세리, 창기들 속에서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로 작정한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요구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은 자기를 비우는 결단 없이는 결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주님은 남을 섬김에서 보람을 찾으셨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자신의 영광을 보셨습니다. 우리가 '섬김에서 보람을, 죽음에서 영광을' 보는 눈이 열리고 그런 삶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짐으로 행복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비움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며 남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기보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신 분이십니다. 성육신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케노시스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레이스(Grace)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성탄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자의적인 사랑이 은혜입니다.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One blessing after another)라고 했습니다. 이는 최상의 은혜요 풍성한 은혜요 계속 되는 은혜를 말합니다. 성탄의 참 의미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실패도 은혜요 성공도 은혜입니다. 건강도 은혜요 병든 것도 은혜입니다. 사는 것이 은혜요 죽은 것도 은혜입니다.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끝없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는 받은 은혜가 다하면 또다시 충만한 은혜의 샘에서부터 새로운 은혜가 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평생토록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큰 부자가 한 가난한 부인을 도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부인은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사는 것이 힘이 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인은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1000불짜리 Check와 함께 '앞으로 더 갈 것이 있습니다'라는 사연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 2주일쯤 지났을 때 또 1000불 Check와 함께 '더 갈 것이 있습니다'라는 글이 적힌 편지가 왔습니다. 그것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편지를 받을 때마다 돈과 함께 '앞으로 더 갈 것이 있습니다'라는 글이 그 부인을 기쁘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는 '더 줄 것이 있다'는 사연과 함께 보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죄를 모두 용서한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용서하리라" "너에게 건강을 주노라. 계속 건강케 하리라." "네게 복을 주리라. 너뿐만이 아니라 네 자손 대대로 계속 복을 주리라" "너의 가정에 화평을 주노라. 계속해서 화평을 주리라" "너의 사업을 형통하게 하노라. 계속 형통케 하리라" 오늘 받은 은혜가 오늘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육신 하신 예수님은 임마누엘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두려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코로나바이러스가 더욱 창궐함으로 모두가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는 주님의 통제 하에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자신을 비움으로 겸손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교만을 버리고 섬김을 실천하며 겸손하게 사십시오. 크리스천의 최고 덕목은 겸손에 있습니다. 겸손하면 평안을 누리지만 교만하면 분요하기만 합니다.

예수님은 충만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은혜를 알면 모든 것이 감사요 평안이요 행복이요 기쁨입니다. 임마누엘의 확신 속에서 주님의 겸손을 닮아가며 은혜에 감사하며 성탄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kohsehan@gmail.com

담임목사 나성균

교회집회안내

토요새벽기도회	6:00 AM	금요찬양예배	8:00 PM
주일아침예배	11:00 AM	중,고등부예배	11:00 AM
대학청년부예배	1:00 PM	유년,초등부예배	11:00 AM
수요예배	8:00 PM	영아, 유치부예배	11:00 AM

www.cpcclt.com

PCA

TEL.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CELL. 704.877.6642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악을 선으로 이기신 성탄절

지금부터 62년 전 1958년 4월 어느 날 밤 9시경이었다. 필라델피아 시 해밀턴 36가에서 27세의 한국인 유학생 오인호 씨가 무차별 폭행을 당하여 생명을 잃었다. 부산의 부모에게 쓴 편지를 우체통에 막 넣고 돌아서는 순간 영문도 모른 채 일방적인 공격을 받았다. 그것도 자그마치 11명의 흑인 청소년들에게 주먹질과 발길로, 깨어진 유리병으로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다. 비명 한번 질러보지 못한 채로 그 자리에 쓰러져 생명을 잃었다. 이 날 횡사를 당한 오인호 씨는 서울대학교 재학 중에 이스튼 칼리지에 유학하여 졸업한 후 펜실베이니아 대학원에 재학 중에 변을 당했다. 불과 5분 거리도 안 되는 작은 아버지 오기항 목사 집에 묵고 있었을 때였다.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죽임을 당한 것이다. 그날 밤 그곳에서는 청소년들의 댄스파티가 있었는데 35센트의 입장료가 없어서 흑인 청소년들이 범행을 저질렀던 것이다. 사건이 벌어진 후 3일 만에 범인들이 전원 체포되었다.

이 충격적인 사건이 보도되었을 때 미국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고 한다. 아무리 범죄가 많았던 미국 사회라고 해도 60년 전의 사회 윤리로 봤을 때는 굉장한 뉴스가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대부분들의 배심원들은 범인들을 극형에 처할 것을 주장했다고 한다. 무참하게 젊음의 생명을 잃어버린 한국 유학생의 장례식에 수많은 시민들이 찾아와 애도를 했다고 한다. 필라델피아 시장도 함께 그 장례식에 참여할 정도였다고 한다. 아들의 충격적인 사망의 소식이 부산의 가족들에게 전달되었다. 벼락같은 소식에 온 가족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 그러나 그 부모와 가족들은 슬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구했다. 그리고 오인호의 아버지 오기병 장로는 눈물의 편지를 담당 재판장에게 보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은 이미 천국에 갔습니다.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슬픔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고 이미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부부는 철없이 범행한 청소년들을 용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아직 저들은 미성년자들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서, 또한 절망가운데 있을 저들의 부모들의 마음을 봐서라도 무죄로 석방해주시길 탄원합니다. 작은 돈이지만 저들의 앞날에 직업교육과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에 보태 쓰도록 500달러를 동봉하오니 귀하게 쓰여 지기를 바랍니다.'

또 한 번의 신선하고 충격적인 소식이 미국 전역에 대서특필되었다고 한다. "악을 선으로 갚다"(To Return Good for Evil)"는 제목으로 무조건 범인들을 용서하고 저들의 장래를 위해서 거금의 헌금까지 보낸 오인호의 부모와 가족들의 얘기들이 4면에 걸쳐서 보도되었단다. 그 당시 한국은 전쟁이 끝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매우 어려운 시절이었다. 노동자 하루 임금이 30센트 정도였는데 500달러는 4년 5개월에 해당되는 한 사람의 일당이 되는 거금이었다고 한다. 그의 아버지 오기병 장로는 자신의 집을 바쳐서 영도교회를 건축할 만큼 독실한 믿음의 소유자였다. 연탄보일러를 발명하여 기업에서도 성공한 기업인이었다. 그는 27세에 최연소 장로가 되는 기록을 세울 만큼 전적인 헌신자였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장로교회에서는 오인호 씨의 가정의 미담들을 35분짜리 영화를 제작하였다고 한다. 3년 동안 5천여 교회에서 상영하여 162만 달러 이상의 청소년 선도 모금의 기록도 세웠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오인호의 모교인 이스튼 칼리지에서는 그의 가족들의 숭고한 사랑을 기리기 위해서 '오인호 기념 컨퍼런스 룸'을 만들고 6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들의 사랑과 헌신을 기념하고 있다고 한다. 2천년 전에 이미 선으로 악을 이기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의 미담이 이번 성탄계절에도 온 세상에 대서특필되기를 기도하면서 성탄을 기다린다.

jykim47@gmail.com

아직도 '마스크 논란'…그러나 효과 있다!

BBC, 마스크 의무화한 사우스다코타 브루킹시의 실험사례 연구 보도

미국의 주 절반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문제는 큰 논란이 됐다. BBC는 미국에서 주 정부와는 달리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한 도시를 면밀히 살펴봤다. 이를 통해 마스크 착용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엔 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가용한 데이터를 살펴보고 비교한 후 각기 다른 전염률에 영향을 미쳤을 몇 가지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은 가능하다(Covid-19: The mask-wearing US city that bucked the trend).

사우스다코타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전염률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손꼽힌다. 공화당 주지사 크리스티 노엠은 마스크 착용을 의무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주 차원의 봉쇄조치도 주정부에겐 그럴 권리가 없다며 실시할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크리스티 노엠은 2019년부터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였다. 그러나 사우스다코타의 몇몇 지역은 다른 길을 택했다. 사우스다코타에서 4번째로 큰 도시인 브루킹스는 9월 업장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역조치들을 취했다.

이런 조치를 내린 후 브루킹스의 전염률은 어떻게 됐을까? 브루킹스시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결정은 처음에 반발을 샀다고 현지 언론사 레지스터의 발행인 윌리엄 맥매켄은 말한다. 그러나 지역 정부와 보건 관계자들의 꾸준한 메시지와 함께 마스크 착용이 확산됐다.

맥매켄 발행인은 "브루킹스에서 내가 즐겨 찾는 식료품점에 가면 요즘은 거의 80-90%가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주된 요인은 바로 사우스다코타주립대학교였다. 가을 동안 사우스다코타주립대에 다니는 많은 학생 인구를 유지하기 위해 대학교가 계속 개방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맥매켄은 덧붙였다.

브루킹스시에 도입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는 이 시가 포함된 행정구역(브루킹스 카운티) 전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입수한 데이터는 브루킹스시가 아닌 카운티의 자료로 한계가 있다. 하지만 브루킹스 카운티는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5개 카운티 중 가장 낮은 전염률을 보여준다.

앞서 브루킹스시가 지난 9월보다 강력한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도입했을 당시, 브루킹스 카운티는 5개 카운티 중 가장 많은 일일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지난 10월과 11월을 거치면서 사우스다코타주의 전염률이 상승한 반면, 브루킹스의 상승률은 다른 지역보다 더 낮았다.

이것이 마스크 사용 때문만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사우스다코타주립대의 전염병연구자 보니 스페커는 술집과 음식점의 영업규제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이런 차이를 만들었다고 말한다.

사우스다코타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자 수십 개의 의료단체들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다른 도시들도 방역 수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7일에는 사우스다코타에서 가장 큰 도시인 수폴스가 60일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히 확진자가 급증하는 곳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언 퓨리 대변인은 "미네소타, 위스콘신, 일리노이는 수 개월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주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은 사실이나 어느 곳도 사우스다코타만큼 인구 대비 확진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곳은 없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비롯한 방역조치를 도입한 후 미네소타, 일리노이, 위스콘신은 상대적으로 확진자 수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여름부터 미국 전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를 거스를 순 없었다. 그러나 여전히 사우스다코타에 비해서는 급증의 시점도 늦었고 그 현저함도 덜한 편이었다.

팬데믹 발생 후 지금까지 사우스다코타는 인구 10만 명당 총 확진자 수가 9700명 이상이었다. 반면 위스콘신은 7600명 가량이었고 일리노이와 미네소타는 6300명가량이었다.

미국에서 실시된 연구들도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전염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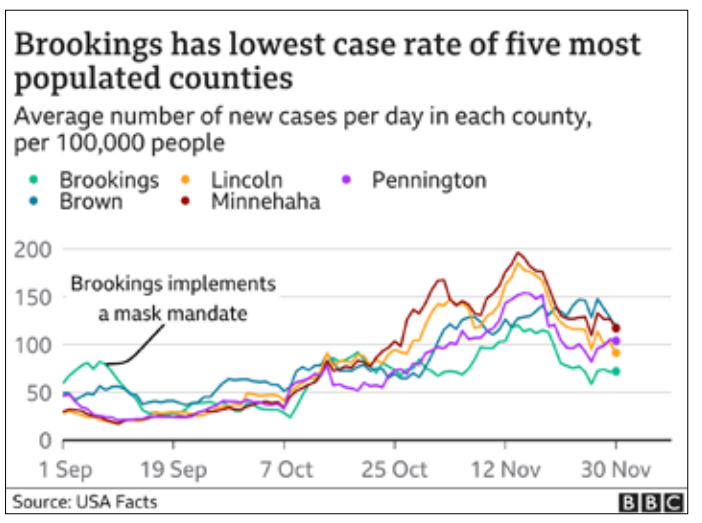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달 캔사스의 6-8월 전염률을 살펴본 연구를 공개했다. 연구 결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줄었으나 이를 도입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확진자 수가 계속 늘었다.

존스홉킨스대학교의 교수 케이트 그라보스키는 "우리가 검토한 모든 연구 결과들은 마스크 의무화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전염률을 낮추는데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라보스키 교수도 "연구마다 마스크 착용의 효과가 다른 것은 놀랍지 않다. 여러 지역에서 각 사람들이 방역수칙을 얼마나 준수하느냐에 따라 효과가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CDC는 팬데믹 초기에는 마스크 착용을 권장하길 주저했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는 물리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지침을 바꿨다. 세계보건기구(WHO)도 6월 같은 입장으로 선회했다.

브루킹스시에서 코로나19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닉 웬델 시의원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의료체계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었고 학교와 사업장들이 계속 운영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최다 인구 5개 카운티 중 전염률 가장 낮아
코로나19 존속하지만 학교 사업장 계속 운영

시론

〈2면에서 계속〉

포스팅 내용으로 봐서 12월 현재 그녀는 갑자기 옮기게 된 뉴욕의 어느 오피스에서 숙식과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신의 포스팅에서 슬쩍 언급한대로 '그지 같은 생활'이라고 절망할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 왔는데도 한 줄의 포스팅에도 투정이나 불평 원망을 쓴 적이 없는 것을 볼 수 있다. 참고로 그녀의 사진은 본인의 용모를 비롯해 두 마리의 반려견, 책상 위의 컴퓨터와 몇 가지 사무기기 등이 결코 '없어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그녀는 꽤 실력 있는 커리어우먼의 자질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ZOOM을 통해 관련 회사 담당자들과 활발한 미팅을 하는 모습들도 볼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녀의 포스팅에서 '마리아의 찬가'를 듣는다. 맨해튼 한가운데서 지금으로선 아무 것도 없이 삶을 투자하며 살아가고 있는 아주 평범한 이야기들 속에서 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는 마리아의 노래 소리가 들려올까. 주차가 워낙 힘든 도시인 뉴욕 맨해튼 한가운데서 그녀는 싼 스트릿 피킹에 차를 세우고 자전거로 30분 거리의 숙소로 들어와 자고 일찍 일어나 꽤 비싼 주차티켓을 떼지 않기 위해 차를 옮겨놓곤 하는데 그 날은 새벽 6시에 차를 옮기러 나가기엔 몸이 너무 지쳐있었다. 그냥 내처 자고 일어나 자전거로 30분을 달려갔는데 마침 인근 공립학교가 휴교여서 주차위반티켓이 안붙어 있다. 그날의 포스팅은 이렇게 맺음 한다. '멀쩡한 내 차를 보고 다시 자전거를 타고 오피스로 돌아오는 길은 진짜 시원하고 통쾌하고 뭔가 막힘이 솟는다. 아, 어젯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

뉴욕의 한 여자가 사는 이야기에서 팬더믹에 눌린 사람들에게 힘을 줄 메시지를 본다. 뉴욕의 겨울에 매일 파킹을 옮겨 놓으며 자전거로 30분 거리의 숙소로 와서 잔다는 것이 얼마나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인가. 그러나 '그 여자가 사는 법'은 이렇다. "상황은 나보고 불행하고 그지 같은 상황이라고 말하지만 내 몸은 튼튼해지고 있는 중이라 읽는다."

마리아의 찬가는 고상한 소프라노 솔로가 아니다. 시장판의 이야기들이 멜로디가 되고 화음이 되는 소리가 마리아가 노래했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는 고백이라면 이제 지겨워진 팬더믹 현실 또한 찬양의 노래 소리로 바꿀 수 있을 것이 아닌가. 불행하고 그지 같은 삶이라고 투정부리고 싶은 우리에게 맨해튼의 한 여자가 사는 이야기는 마리아의 찬가를 불러주고 있다.

코로나시대 성탄절...

〈2면에서 계속〉

성탄절 행사는 다른 예배보다 참석하기 쉽기 때문에, 교회는 성탄절 예배와 행사에 대한 정보에 교인들이 쉽게 댓글을 달고 공유할 수 있는 소셜 미디어에 게시해 온라인 전도의 기회를 극대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셜 미디어에서 특별한 음악행사에 대한 댓글을 공유하는 것은 온라인 전도에 대한 간단한 결실이다.

다른 사람들과 연결

외출할 수 없는 사람이나 요양원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 많은 사람은 성탄절기 동안 가족이나 친구의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이 절기 동안 교회의 자원봉사자들이 지속해서 전화심방을 하는 것은 그들이 교회와 다른 사람들과 연결돼있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전염병이 유행하는 시기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성탄절기에 외로울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올해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을 더 의도적으로 해야 한다.

성탄절기에 예배를 가정으로 가져가기

아마도 추수감사절을 제외하고는 미국 문화에서 성탄절은 가장 많은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기다. 점점 더 많은 교회가 성탄절 예배를 드리지 않는 이유가 선물을 개봉하고,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고, 가족과 시간을 나누는 가족중심의 의식과 경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이러한 가족 전통을 제쳐 놓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신, 교회와 예배를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중심의 행사와 통합할 수 있다. 많은 가족이 이번 성탄절에 홀로 지낼 것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집에 모여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격려할 완벽한 기회다.

전염병은 이번 성탄절에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전염병은 또한 새로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교회의 존재와 사역의 새로운 방법을 가져왔다. 2020년 성탄절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도록 요구한다.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미국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일까? 분별하며 기도할 때!

좌파언론을 대표하는 걸로 잘 알려진 CNN에는 "the Good stuff"라는 뉴스섹션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를 가면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A newsletter for the good in life." 그리고 이 섹션에서는 주로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훈훈한 일들을 나누는 걸로 알리고 있는데 이번에 훈훈한 이야기에 오른 대표적 기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 California has appointed its first ever Muslim chaplain to the state legislature(아래 번역) 글쓴이와 날짜: By Alaa Elassar, CNN: Updated 9:15 AM ET, Mon December 14, 2020

"캘리포니아가 최초의 무슬림 목사를 주의회에 임명하다"

다른 MNBC 같은 주류언론들 역시 앞 다퉈 "좋은 소식"이라고 알리고 있습니다. 이맘 모하마드 야 시르 칸은 12월 7일 캘리포니아 주의회(speaker of the California State Assembly) 인 Anthony Rendon(앤서니 렌든)에 의해 2021-22년 회의에서 "주정부 입법부의 목사(chaplain for California Legislature)"로 임명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주의회에 정확히는 법안을 만드는 입법부(Legislature)에 임명 된 최초의 무슬림 목사가 된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말로는 "목사"는 기독교 용어로만 사용하는 반면 영어로는 여러 영어단어들이 "목사"로 번역되며 미국의 신앙이 주정부마다 변질 또는 재해석됨에 따라 기독교적 "목사"를 세상적 "목사"로도 사용되는 패턴이 생기고 있음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좋은 한 예는 버락 후세인 오마마 전 대통령이 2016년 최초의 트랜스젠더 Activist를 백악관 신앙자문위원"으로 임명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주로 크리스

사진출처: Courtesy of Alberto Mercado-Imam Mohammad Yasir Khan 이맘 모하마드 야 시르 칸

천 목사/프리스트들이 자문자로 있던 자리에 David이라는 남성으로 태어나서 살았다가 Babara Satin 여성으로 바뀐 트랜스젠더였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른팔로 알려졌고 여전히 매우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는 독실한 무슬림신앙을 가진 이맘 모하마드 야 시르 칸을 입법부 "Chaplin 목회자"로 임명한 것입니다.

앤토니 랜던 의원은 성명에서 "Imam Yasir Khan represents California's growing diversity in all the best ways – 이맘 야설 칸은 캘리포니아에서 증가하고 있는 모든 다양성을 가장 잘 대표한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더 했습니다.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이슬람 공동체의 성장을 보았고 종교 지도자와 시민 지도자 모두와 가까워졌다. 그들처럼 Khan은 캘리포니아의 영적 및 시민 활력에 기여하려는 강한 열망을 보여줬다. 칸은 이미 여러 면에서 자신의 열망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이다."

독실한 무슬림이란 코란을 굳건히 믿는 사람으로 오바마 시절 친이슬람/반이스라엘 정책이 펼쳐지며 미국은 최초로 미국 땅에 이슬람 Isis의 증가뿐 아니라 공격까지 받은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유럽을 봐도 어떤 일들이 생겨날지 알 수 있으며 이미 무슬림들이 장악하고 자신들의 땅으로 선포한 미국안의 몇몇 도시를 봐도 캘리포니아의 미래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선 나중에 다시 다루겠습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소망-조지아주 상원의원 투표 1월 5일!

이번 조지아주의 상원투표는 11월 3일에 필요한 투표 숫자를 받지 못하여 1월 5일 다시 재투표에 들어가게 됩니다.

2016년 오바마에 의해 임명됐던 백악관 신앙자문자 Faith Advisory Council

1월 5일의 재투표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자들과 미국을 총체주의/글로버리스트와 합치고자 하는 자들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1월 6일에 미대선 관련 법적으로 정식 대통령 선포가 있을 것입니다(미대선 업데잇과 법적인 중요한 날짜들은 Tvnext.org에서 보세요).

조지아주 민주당 대 공화당 쪽에서 나온 Candidate들의 가치관 하이라이트

1. Raphael Warnock, Jon Ossoff(민주당)은 둘 다 민주당 정강(Democrat Platform)을 온전히 동의합니다. 민주당 정강은 반기독교/비도덕적인 젠더/성별/낙태/친사회공산주의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2. Raphael Warnock은 마틴루터 킹을 존경하는 목사라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는 마틴루터 킹이 추구했던 진정한 자유와는 완전 반대되는 막시즘/사회공산주의 사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런 사상을 "진정한 사회정의"로 생각하며, 더욱이 성경에서 "죄"라고 지적한 "젠더/성별/낙태"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않는 목사입니다.

한 예로 지난주 라파엘 월녹 목사(민주당) 대 켈리 로플러(공화당) 토론(Debate)이 있었습니다. 논쟁 중 라파엘 월녹 목사가 "평화와 포용, 다양성, 인권존중" 등 듣기 좋은 이야기들을 펼치자 켈리 로플러가 질문을 하길, "막시즘 공산주의를 추종한다고 스스로 고백한 BLM의 조직적 폭행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막시즘과 사회공산주의를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있느냐"라고 묻자, 라파엘은 "흑인의 생명은 중요하다"로 대답했습니다.

켈리의원은 "당연히 흑인의 생명이 중요하고 모두의 생명은 중요하다. 나의 질문은 흑인 생명(black lives)이 아닌 BLM 조직의 사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당신은 반대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으나 계속 질문을 피했습니다.

왼쪽 2명 Raphael Warnock, Jon Ossoff(민주당), 오른쪽 2명 Kelly Loeffler, David Perdue

또한, 켈리의원이 질문하길 "인권존중을 이야기한다면서 당신은 오바마케어의 낙태지지를 오랫동안 해왔다. 무분별한 낙태를 인권존중이라고 할 수 있는가? 당신은 건강한 태아를 계속 죽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역시 라파엘 목사는 대답하기를 피했고, 앵커가 빨리 질문들을 다른 걸로 주도해 나갔습니다.

이번 대선은 1월 6일 정확히 판단이 나올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자들과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의 전쟁에 여러분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매일 성경을 아침에 차례로 몇 장씩 읽습니다. 세례는 원래 교회의 목사님들만이 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성경 사도행전 8장 38절을 읽으니 빌립 집사가 구수 내시에게 세례를 주는 것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집사도 세례를 줄 수 있다는 말인가요?

토랜스의 김 권사

A: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세례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예배모범 제9장 1조를 보면 세례는 공연히 지체할 것도 아니요 어떠한 형편을 물론하고 평신도가 베풀 수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목사가 베푼다고 되어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빌립 집사의 구수 내시 전도와 세례 베품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는 그 당시 예루살렘교회의 안수집사였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연구해보면 그는 전도자였습니다. 전도자는 그 당시 창설직원 혹은 비상직원이라고도 합니다. 사도시대의 교회에만 있었던 직원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강림 후에 교회는 비상한 시대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특별한 인물들을 선택하여 이적적 은사를 주셔서 비상한 능력을 가지고 선교를 하였는데 이런 이적적 은사를 받은 사도 선지자, 전도인 같은 인물들을 창설직원이라고 한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전도인) 목사와 교사란 5중직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빌립은 복음전하는 전도인에 속합니다.

빌립은 전도인 직분으로 세례 베풀어

첫째 사도는 주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12제자들을 생각합니다. 바울도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바울을 도와 수고하던 사역자들도 사도적 은사를 받아서 사도로 불리우기도 하였습니다(행14:4,14, 고전9:5-6, 고후8;23, 갈1:19). 어쨌든 이 사도들은 온 세계 교회의 초석을 놓았는데 이적은 사도들의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고후 12:12의 사도의 표된 것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사는 사도시대 이후에는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통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이 사도들은 단회적이며 사도직을 계승한 일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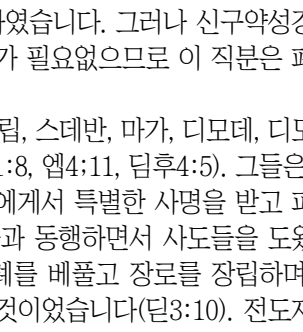
둘째는 선지자입니다. 구약시대에 선지자가 있었던 것같이 신약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행11:27, 28:13;12, 15:32, 고전12:10, 13:2, 14:3, 엡2:20, 4:11, 딤전4:14, 계11:6). 그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말씀의 은사를 특별히 받은 자들로서 비밀을 계시하며 장래의 일을 예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신구약성경이 완성된 오늘에서는 선지자의 존재가 필요없으므로 이 직분은 폐지되었습니다.

셋째는 전도인입니다. 이들은 빌립, 스데반, 마가, 디모데, 디도가 이 전도인의 반열에 속합니다(행21:8, 엡4;11, 딤후4:5). 그들은 사도들을 수행하여 도왔으며 사도들에게서 특별한 사명을 받고 파송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들과 동행하면서 사도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의 직무는 전도하고 세례를 베풀고 장로를 장립하며(딛1:5, 딤전5:22) 권징을 시행하는 것이었습니다(딛3:10). 전도자는 사도들처럼 이적과 기사도 행하며 능력있게 선교하였기에 그들의 영적 권위는 보통 사역자들보다 다소 우월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직분은 사도들을 보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직의 폐지와 함께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은 교회의 집사이면서도 사도행전 8장을 보면 그는 능력있는 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며 많은 표적과 기사를 베풀고 수많은 귀신도 내쫓았습니다. 사도들과 같은 권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세미나 안내

1. 하나님의 인을 받으라
2. 70이레
3.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미나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323-665-0009(LA)(판매)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아프리카의 슈와 아랍(Shuwa Arabs)

슈와 아랍인들은 "바가라족(Baggara)"으로도 흔히 불려지는데, 이 이름은 "소"를 뜻하는 "바가르"(bagar)라는 아랍 단어에서 나온 것이며 서부아프리카의 소 사육자들인 아랍부족들을 지칭한다. 그들은 차드호 지역에서 동쪽으로 나일강에 이르기까지 수단, 니제르, 차드, 카메룬,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의 나라에 퍼져 있다. 그들은 관목이 듬성듬성한 지역에서 삼림이 울창한 초원지대까지 덥고 반 건조한 기후지대에서 산다.

바가라 부족들은 아랍인의 후손들로서 아랍어의 슈와 방언을 주로 구사한다. 그들은 12세기와 13세기 사이, 수단서부로 들어와서 점차 동서부로 이동해갔다. 18세기 무렵 그들은 주로 차드 호의 북쪽과 동쪽에 집중 거주했다. 그들 부족은 계속해서 동쪽으로 이동해갔으며 서부아프리카의 지평을 넘어 널리 퍼져나갔다. 그들은 그들 근처의 흑인 부족들과 혼인관계를 맺었고, 이런 혼혈로 해서 바가라족은 다른 아랍인들에 비해 더 검은 피부와 두꺼운 입술을 갖게 됐다.

삶의 모습

이웃 아랍부족들이 북쪽 먼 곳에서 낙타를 키우고 있지만 바가라족은 낙타를 기르지 못한다. 초목이 더 두껍고 기후가 보다 습하기 때문에 북부 이웃 부족들과는 달리 낙타를 사육할 수 없다.

바가라 부족 대부분은 유목민들이다. 매년 건기가 되면 가축을 몰고 남쪽 강 주변의 땅으로 이동하고 우기가 되면 초원을 찾아 북쪽으로 간다. 주거위치를 바꾸기 전에 바가라족은 대개 수수, 참깨, 옥수수, 콩을 자신들의 땅에 심어놓고 돌아와서 그 작물을 수확한다.

바가라 남녀의 역할은 매우 다른데, 여자들은 우유를 짜며 공장에 우유를 내다팔고 시장이나 집집마다 우유를 가공한다. 그리고 그 수입을 저축하거나 가계지출로 사용한다. 여자들은 또 집 짓는 일도 하고 아이들을 돌보며 물을 긷고 매일의 음식준비, 장거래도 한다.

남자들은 주로 가축 돌보는 일을 하며, 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한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주로 돌보긴 하지만, 아버지도 아이들에게 많은 애정을 보여주며 시간 나는 대로 그들을 가르친다. 여자들이 집안을 적절히 돌볼 수 있기 때문에 남자들은 때로 1-2년씩 집을 떠나 다른 나라에서 일하기도 한다.

바가라족은 생계를 위해 가축에 전적으로 의존한다. 사람들은 겨울동안 우유와 치즈를 먹으며 동물의 지방과 배설물을 치료 연고로 만들어 사용한다. 그리고 동물가죽은 옷과 텐트를 만드는데 쓰며, 심지어 뼈도 장식물이나 무기를 만드는데 사용한다. 바가라족의 생활은 가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가축들에게 많은 관심을 쏟는다.

바가라족은 돔형으로 된 간단한 텐트를 여자들이 만들어 산다. 이 텐트는 쉽게 접혀져서 가축 떼에 얹어 이동할 수 있는 휴대용 구조물이다.

새로운 캠프를 지을 준비를 하면서 여자와 아이들이 쓸 침대를 먼저 만들며 그 둘레에 텐트를 친다. 텐트를 치는 방법은 땅에 구멍을 파서 어린 나무들을 박고 그것들을 위에서 구부려 꼭대기에서 묶어서 짓는다. 좀 작은 나무 가지를 묶어서 틀을 만들며 이엉이나 풀더미로 덮는다. 텐트들을 원형으로 배치되며 밤에는 가축들을 이 원형 안에다 들여놓는다.

결혼한 여자가 이 텐트와 가재도구들을 소유한다. 남자들은 캠프 밖이나 안쪽에 "햇볕 가리개"를 설치하며 여기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잡담하며 낮잠 자거나 오락을 즐긴다.

대부분의 바가라 부족들은 유목민이긴 하지만 농촌사회나 읍내에서 사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의 가옥은 진흙벽돌에 초가지붕으로 돼있고 집 뜰에 우리를 만들어 어린 가축들을 기른다.

바가라족은 대개 일부다처제인데 한 남자가 두 아내를 갖게 되면 하나는 목초지의 캠프에서 살고 다른 한 명은 농촌마을에서 산다. 생산물과 노동은 양 집안 사이에서 서로 교환되며, 그 가족의 수입을 늘려서 보다 융통성 있게 운용한다.

신앙

바가라족은 13세기 이후로 무슬림이었다. 이슬람교에서 규정된 옷을 입고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를 향해 시체를 매장한다. 바가라족은 매우 미신적인 사람들로 악령의 존재를 강하게 믿는다. 매일아침 사람들은 재채기를 하는데 이것은 자기 콧구멍에서 밤새 잠을 잔 악령을 내쫓기 위해서다. 바가라족은 남자든 여자든 악어나 하이에나 같은 동물로 바뀔 수 있다고도 믿는다.

필요로 하는 것들

바가라 부족들 중 일부는 선교단체의 사역대상이 돼있으며 성경 일부가 그들의 언어로 번역됐고 기독교방송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슬람신앙에 아주 독실하기 때문에 극소수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 또한 바가라족의 유목민 생활양식은 선교사가 그들에게 다가서는 것을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진보 UMC그룹 해방감리교단 출범

진보적인 연합감리교인들의 그룹과 일부 기독교인들이 해방감리교회(LMX, Liberation Methodist Connexion)라는 이름의 새로운 교단을 출범시켰다고 연합감리교뉴스가 보도했다. 새 교단은 기존의 연합감리교회에서 유색인종들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소외됐다고 간주하고, 그들에게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LMX는 대강절의 첫 주일이자 교회력이 시작되는 날인 11월 29일에 온라인 예배와 발표 등을 통해 새 교단의 창립을 알렸다. 이 모임에는 400명 이상이 등록했다. LMX는 연합감리교회 내에서 성소수자들을 얼마나 포용할 것인가에 관해 수십 년간의 치열한 논쟁을 벌인 후 창립됐다.

LMX는 1960년대 라틴아메리카 가톨릭 신학자들에 의해 생겨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임스 콘 목사와 같은 감리교 신학자에 의해 확대된 해방신학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 해방신학은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강조한다.

한편 연합감리교인들은 2020년 5월로 예정됐던 총회에서 공식적인 교단 분리를 통해 동성결혼과 성소수자 안수 문제를 해결하는 안건을 채택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팬데믹으로 관련 시설이 폐쇄돼 총회는 2021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로 연기됐다.

인도네시아 이슬람 무장세력 기독교인 4명 살해

한국순교자의소리(VOM)는 지난달 27일 인도네시아 술라웨시주에서 기독교인들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소속으로 추정되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칼과 총으로 무장한 테러리스트들은 술라웨시주의 레워누 렘방통고 마을을 공격해 기독교인 4명을 살해했다. 희생자들은 구세군 소속으로 알려졌다. 테러리스트들은 구세군이 기도실로 사용하는 집을 포함한 가옥 7채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 750명을 삶의 터전에서 몰아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해당 지역의 보호를 강화한 상태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포스트'는 인도네시아 군대가 살인범을 수색하기 위해 특수부대를 현지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VOM은 이번 테러를 테러리스트들의 보복 공격으로 보고 있다. 이 마을 기독교인들이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의심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현지 VOM 관계자의 설명이다.

한국VOM은 "VOM 사역자들이 피해 입은 기독교인들을 돕고 있다"면서 "한국VOM도 피해 기독교인 가족은 물론 난민이 된 기독교인들을 돌보기 위해 '순교자 및 수감자 가정 지원 기금'을 활용해 긴급 지원금을 보냈다"고 전했다.

이달 중 한국VOM에 지원 기금으로 들어오는 지정 헌금도 현장에 모두 보내고 피해 가족과 지역 주민들의 트라우마 상담도 진행할 계획이다.

"CS 루이스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10가지 사실"

소설 '나니아 연대기'와 기독 고전 '순전한 기독교'로 전 세계에 두꺼운 독자층을 둔 작가 CS 루이스(1898-1963)의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가 공개됐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CT)는 최근 윌리엄 오플래허티가 기고한 '당신이 CS 루이스에 관해 모르는 10가지'를 전했다. 오플래허티는 작가이자 유튜버로 최근 '잘못 인용된 CS 루이스'란 책을 펴냈다.

기고엔 루이스의 일생과 작품을 둘러싼 속사정, 세간에 잘못 알려진 내용 10가지가 담겼다. 대부분은 루이스를 세상에 알린 작품은 '나니아 연대기'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나니아 연대기의 첫 편인 '사자와 마녀와 옷장'(1950년)을 내기 전부터 유명했다. 루이스는 1947년 9월 8일자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에 특집 기사로 소개됐다. 그가 기사화된 건 42년 펴낸 소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큰 인기를 얻어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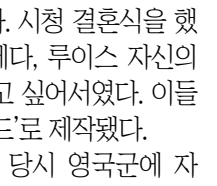
루이스가 늦은 나이에 맞은 아내 조이 데이빗먼과는 2차례 결혼식을 올렸다. 루이스는 미국인인 데이빗먼이 영국에서 추방되지 않도록 돕기 위해 56년 4월 시청 결혼식(시청에서 약식으로 하는 법적 결혼식)을 올렸다. 하지만 그해 10월 데이빗먼이 골수암 판정을 받자 이듬해 3월 병원에서 다시 결혼식을 올렸다. 시청 결혼식을 했다는 걸 아는 이들이 적은 데다, 루이스 자신의 사랑을 주변에 더 널리 알리고 싶어서였다. 이들의 이야기는 영화 '샤도우 랜드'로 제작됐다.

루이스가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에 자발적으로 입대해 전선에서 부상을 입었다는 것도 덜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17년 4월 옥스퍼드대의 장교훈련대에 들어가 그해 11월 프랑스 전선으로 이동했다. 이듬해 2월 발열로 입원했고 두 달 뒤엔 아라스 전투에 참전한 뒤 부상을 당했다.

루이스는 옥스퍼드대에서 영문학을 가르치기 전 철학을 강의했고 30여년간 그곳에서 교편을 잡았지만, 교수란 칭호를 받지 못했다. 영문학 강의로 옥스퍼드대 학생에게 널리 존경을 받았지만, 그가 정교수로 지낸 대학은 케임브리지대였다.

소설 '반지의 제왕' 저자인 JRR 톨킨은 학교 측에 루이스를 추천하는 편지를 2차례 보내는 등 그의 케임브리지대 교수직 임명에 발 벗고 나섰다. 옥스퍼드대를 함께 다니며 친구가 된 두 사람은 평생 우정을 쌓았다. 특히 루이스는 톨킨이 '반지의 제왕'을 펴낼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을 아끼지 않았다. 톨킨은 그의 편지에서 루이스에 관해 이렇게 적었다. "나는 루이스의 격려 덕분에 인내하면서 마침내 반지의 제왕을 완성할 수 있었다."

美 하원, '신성모독 · 이단 · 배교법 폐지...' 통과



미국 하원이 전 세계에 '신성모독', '이단', '배교법' 폐지를 촉구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13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7일 미 하원은 양당의 압도적인 지지(386 대 3)로 결의안 512호를 통과시켰다.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지지하는 이 결의안은 80개국 이상의 국가가 신성모독법을 이용해 소수종교와 (주류 종교) 반대자들을 박해 및 투옥하는 데 대해,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고 종교적 양심수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법안을 주도한 제이미 라스킨(Jamie Raskin) 하원의원은 이날 원내 발표를 통해 "우리의 초당적 결의안이 하원에서 통과되는 것을 보게 되어 기쁘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라스킨 의원은 "권위주의 정권들은 종교적 소수자들을 감금, 고문, 살해하기 위해 자의적 신성모독과 이단, 배교법을 사용한다. 오늘 하원은 전 세계적으로 이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종식시킬 것을 촉구했다"며 "이 중대한 승리에 만족하지만,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누구도 종교적 신념 때문에 수감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nited State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Religious Freedom, USCIRF)에 따르면 전 세계 1/3 이상이 벌금, 징역, 징용, 사형제도와 더불어 신성모독법을 유지하고 있다.

유튜브 "부정선거 주장 콘텐츠 불허"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사이트 유튜브가 2020년 미국 대선과 관련해 부정선거 또는 사기 행각이 있었다는 내용의 주장을 담은 영상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 미 전역에서 선거 인증 결과가 나온 이상 부정선거 주장은 가짜뉴스로 취급하겠다는 것이다.

유튜브는 지난 9일자사 블로그를 통해 "2020년 선거 결과를 지지한다"면서 "광범위한 선거 사기나 투표기기 소프트웨어의 결함, 집계 오류가 대선 결과를 바꿨다고 주장하며 혹세무민하는 콘텐츠는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삭제 대상은 9일 이후 올려진 모든 콘텐츠다.

유튜브 측은 새 지침의 근거로 미국의 50개 주와 워싱턴DC가 모두 선거 결과를 문제없이 인증했다는 점을 들었다. 미국 내 모든 선거 당국이 선거의 무결성을 인정한 만큼 더 이상의 '선거 부정' 논란은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유튜브는 이날 지침에 앞서 선거 기간 동안 대선과 관련해 오해 소지가 있거나 유해한 영상 수천 개를 차단해왔다. 유튜브는 삭제한 유해 영상의 77%가 조회 수 100번을 넘기 전에 삭제됐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약관에 위배되는 콘텐츠 4개 중 1개는 구독자들에게 보다 광범위하게 전달된 셈이다.

미 공화당은 유튜브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든다며 강력 반발했다. 공화당 소속 조시 하울리 연방 상원의원은 "유튜브가 공식적으로 '의사 표현의 자유를 더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공표했다"며 "선거의 무결성이 우려되더라도 가만히 앉아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하울리 의원은 그러면서 소셜미디어의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는 통신품위법 230조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소셜미디어(SNS) 기업이 특정 정보를 제한하고 검열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해주는 보호막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을 무기 삼아 SNS 기업들이 횡포를 저지른다며 폐지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게시글 다수를 차단해온 페이스북과 트위터에 이어 유튜브까지 이 같은 대열에 동참하며 극우 유튜버들의 목소리는 점차 힘을 잃게 될 전망이다.

미, 백신 접종 개시…뉴욕 간호사에 첫 접종

미국에서도 14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날 뉴욕시 퀸스에 있는 롱아일랜드 주이시병원의 중환자실 간호사 샌드라 린지가 미국에서 최초로 코로나19 백신을 맞았다고 밝혔다.

린지 간호사가 이날 오전 9시30분쯤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장면은 TV로 생중계됐다. 그는 접종 후 "나는 오늘 희망과 안도를 느낀다"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매우 고통스러운 시간을 끝내는 일의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첫 번째 백신이 접종됐다. 미국에, 그리고 전 세계에 축하한다"는 글을 올렸다.

앞서 미 보건당국은 지난 주말 화이자-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의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화이자는 최초 공급분 290만회 투여분을 미 전역으로 배송 중이다.

초기 공급 물량이 제한적인 데다 긴급사용 승인 단계라는 점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일선 현장에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 종사자들과 장기요양시설 입소자 등 고위험군이 우선 백신을 맞을 예정이다.

화이자는 연내에 총 2500만회 투여분의 백신을 공급할 계획이고, 곧 긴급사용 승인을 받을 전망인 모더나 백신도 연말까지 2000만회 배포될 예정이다.

코로나19 백신은 2회 맞아야 면역력이 생기며, 첫 번째 접종 후 3-4주 간격을 두고 두 번째 주사를 맞아야 한다. 미 보건당국은 내년 3월 말까지 미국민의 30%에 달하는 1억명이 코로나19 면역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美,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수단 제외

미국이 아프리카 대륙의 아랍국가 수단을 테러지원국에서 제외했다. 이스라엘과 아랍국가들의 수교를 위한 노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AFP통신 등은 14일 미국 정부가 수단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했다고 보도했다. 수단을 테러지원국에서 삭제한다고 미 의회에 통보한 지 45일 만이다.

미국은 1993년 테러조직 알카에다 수장 오사마 빈 라덴에게 은신처를 제공했다는 이유 등으로 수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수단 주재 미국대사관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미국) 국무부는 오늘부로 수단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통지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수단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이 공식적으로 해제됐다"면서 "이것은 양국 관계가 더 큰 협력으로 나아가는 데 근본적 변화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수단 군부와 야권의 공동통치기구인 주권위원회의 압델 파타 알부르한 위원장도 이날 트위터에서 테러지원국 해제에 대해 "역사적 결정"이라며 "수단의 민주적 권력 이양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26)

교회사가 가르친다!(13) - 교회 음악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각 교회는 사용하는 찬송가 복음송 가사와 음악형태 점검해봐야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는 경배에 집중이 성도들의 찬양 모습

교회 음악

음악은 예배에 필수적 요소이다. 각 교회마다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 음악과 연관된 인력과 경비를 많이 사용한다. 예배당에 그랜드피아노와 파이프오르간을 비치해놓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위해 노력한다. 교회의 주요멤버들이 속해있는 성가대는 교회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지닌 공동체이다. 경우에 따라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솔리스트와 오케스트라 단원들에게 사례비가 지불되기도 한다. 이전에는 악보를 무단 복사하여 사용하였지만 요즘은 저작권문제로 인해 성가대원의 숫자만큼 악보를 구입하고 있다.

왜 이토록 교회마다 음악과 연관된 사항을 중시하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도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기 때문일 것이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사43:21).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드리는 그에게 찬양과 경배를 돌릴 때 크게 기뻐하신다. 음악은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다.

교회가 음악사용을 중시하는 만큼 '전통적 교회음악'과 '현대적 교회음악'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전통적 교회는 대부분 피아노, 오르간, 또는 오케스트라 반주를 사용하며 성가대의 역할을 매우 중요시한다.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의 주악, 대표기도를 마친 후의 송영, 그리고 설교 전 성가대의 대표찬양 등의 순서가 있다. 헌금시간에는 솔리스트의 찬앙이나 특별히 준비된 음악순서가 있다. 성도들은 2번에서 4번의 회중찬송을 부른다.

전통적 교회는 선곡에 대해 민감하다. 모든 생각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세상음악과 달라야한다는 확신에 기초한다. 주로 클래식형식으로 작곡된 음악과 교회에서 사용되는 찬송가에 수록된 곡들과 선택한다. 특히 주일 오전 '대예배' 시간에는 복음송의 사용을 금지하고 박수를 포함하여 몸짓과 함께 찬양하는 행위를 삼간다.

1990년대부터 새로운 형식의 예배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열린예배' '젊은이예배' '찬양예배' '신바람예배' '현대예배' 또는 '컨템포러리예배' 등 명칭이 다양하다. 대부분 긴 찬양시간,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 설교, 그리고 결단기도와 찬양으로 이어지는 간단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부터 교회음악에 대한 혁신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 전통적 악기가 사라지고 대신 전기기타, 전자오르간, 그리고 드럼 등이 포함된 찬양밴드가 예배의 반주를 맡는다. 찬양단원들이 각자의 마이크를 사용하면, 본당 뒷면에서 음향을 담당하는 사역자가 전체소리를 조정한다. 본당뒷면에 설치된 영상화면에 미리 준비한 가사를 실시간 띄우는 사역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전통적 예배에 익숙한 성도들은 새로운 예배형식이 처음 등장하자 크게 당황했다. 특히 음악에 대해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익숙하던 잔잔한 악기와 달리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전자악기와 목소리 그리고 드럼소리가 마치 소음과 같아 정신이 없다고 한탄했다. 사실 찬양단의 소리가 너무 커서 예배를 방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현대적 음악에 대한 결정적인 불만은 바로 선곡이다. 새로운 형식의 예배에서는 간혹 찬송가도 부르지만, 현대적 감각의 박자와 음정을 지닌 복음송을 선곡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 이런 종류의 음악은 예배에 절대로 사용될 수 없다고 확신하는 성도들이 제법 많다.

거룩한 음악?

1970년대 캠퍼스신앙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복음송이 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한 보수적 신학대학의 음악과 교수가 '복음송은 사탄의 음악'이라고 선언하였다. 그 후 복음송 사용에 관한 논쟁이 이어졌다. 보통 교회음악에 대한 전통적 관점은 '거룩'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그들이 추구하는 거룩은 엄숙한 분위기이다. 생소한 곡에 맞추어 몸동작을 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결코 거룩하게 보이지 않았다. 예배자들이 자기만족을 위해 감정에 치우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는 집중하지 않기에, 새로운 예배음악을 통해 결코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므로 보수적 교회는 대부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또한 기타와 드럼과 같은 악기를 '술집용'이라고 지칭하며 교회당에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대다수 교회가 현대식 음악을 서서히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주일예배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주일저녁 찬양예배 또는 수련회와 같은 집회에서는 불러도 무방하다고 보았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전문 찬양사역자들의 생겨났다. 이들이 만든 음반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유행곡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90년 중순부터는 주중 찬양집회에 젊은이들 몰려들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교회 안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현대식 음악을 선호하는 성도들이 많이 생겨났다. 현재는 어떠한가? 거의 모든 교회가 예배시간에 복음송을 부르고 있다. 보수적 교회들도 아예 교회당 앞면에 드럼을 비롯한 전자악기를 비치해놓고 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가져왔는가? 거룩에 대한 기준변화가 생겼는가? 젊은이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허용해준 것인가? 문화적 변화가 가져온 불가피한 결과로 이해하여야 하는가?

종교개혁과 음악

교회음악의 변화는 단지 한국교회에서만 생겨난 것이 아니다. 16세기 종교개혁 이후 서구교회도 새로운 형태의 음악이 나타날 때마다 반복하여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예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가장 중시하였다. 만인제사장직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졌기에 서둘러 자국민을 위해 독일어 성경번역을 마쳤다. 그러나 그는 음악을 포함한 예술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예배시간에 교회성가대만 찬양을 부르는 것은 잘못된 것이며 모든 회중이 한 목소리로 합창찬송을 불러야 한다고 확신했다. 언어뿐 아니라 음악에도 정신을 담아 힘과 용기를 주려면 대중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에, 그 당시 독일인들이 평상시 즐겨 부르는 생동감 있는 노래와 유사하게 작곡하도록 독려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신칭의 신학을 담은 찬송가의 가사를 더욱 중요하게 여겼다. 찬송집이 종교개혁을 급속히 확산되는데 기여하기를 고대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알아차린 자들 중에 루터가 찬송가에 자신의 교리적 확신을 담아 사람들에게 찬양하게 한다고 비판하는 소리도 있었다.

개혁자 요한 칼빈의 교회음악에 관한 관점은 루터와 근본적으로 유사했다. 예배시간에 회중이 직접 함께 찬송을 부르게 하였다. 제네바에서 사역하던 그가 1538년부터 3년간 스트라스부르크에 머무는 동안 마틴 부처(1491-1551)로부터 음악적 영향을 받은 것이다. 칼빈도 찬송가에 있어서 조예가 깊었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를 포함하여 여러 찬송을 직접 작사와 작곡하였다.

회중찬송에 대한 그의 공헌은 1524년에 출판된 '첫 루터란 찬송집'에 잘 드러나 있다. 루터가 가톨릭사제에서 개신교 목사로 전향한 파울 스페라투스(1484-1551)와 함께 편집한 이 찬송집에는 루터의 곡 4편, 스페라루스가의 곡 3편, 그리고 미상자의 곡 1편 등 모두 8곡이 수록되었다. 찬송집 역시 교회개혁에 관한 루터의 글처럼 대중적 인기를 누렸다. 그 결과 같은 해에 '두 번째 루터란 찬송집'이 출판되었는데, 전체 26곡 중 루터의 곡이 18편 수록되었다.

루터에게 찬송가란 예배시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각종 교회모임 외에도 집에서나 들에서, 혼자서 혹은 여럿이 함께 부를 수 있는 소중한 음악의 형태였다. 그는 찬송가에 개혁적 가사를 매우 중시하였는데, 루터와 달리 성경내용이 가사가 되어야 하며 이로서 시편 찬송만 불러야 한다고 확신하였다. 1541년에 제네바로 돌아와 불어로 된 '시편집'을 출판하였다. 시편찬송은 현재까지도 개혁교회에서 지속되고 있다.

또한 칼빈은 찬송음악이 지닌 예술성보다 찬양자의 신앙적 진정성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므로 음악 자체가 감정을 움직일 수 있다는 위험성에 대한 경계로 인해 예배시간에 악기사용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교회에서 가톨릭교회가 사용하던 오르간을 철거시켰다. 찬양의 대상인 하나님이 아닌 예배자의 감정이나 음악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신앙의 고백이었다.

지속적인 갈등

현재 한국교회가 사용하는 찬송가에 수록된 곡들을 살펴보면 매우 흥미롭다. 작사가와 작곡가들의 연대가 16세기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가사를 살펴보면, 보수신학 노선으로부터 자유신학의 다양한 형태가 혼합되어있다. 형식적인 면에서도 클래식으로부터 전도 집회용 복음송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한 새로운 음악을 교회에 접목시킴으로 갈등과 분열을 초래했던 인물들의 작품들도 많이 수록되어있다.

'찬송시의 아버지'로 알려진 아이작 와츠(1674-1748)는 750개의 찬송시를 작사하였다. 그 중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십자가 군병 되어서' 등 13곡이 찬송가에 담겨있다. 그는 시편찬송에 국한되었던 영국의 교회음악을 뛰어넘어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신학적 주제들을 청중들이 따라 부르기 쉬운 가사로 표현하였다. 그 당시 회중교회는 그의 찬송을 환영하였지만 성공회와 장로교회는 그의 음악을 매우 불편하게 생각했다. 그는 알미니안주의를 옹호하는 목회자였다.

그의 형 요한 웨슬리(1703-1791)와 함께 감리교를 창시한 찰스 웨슬리(1707-1788)는 찬송을 교리를 가르치는 도구로 인식하여 신학적인 주제를 담은 찬송시를 많이 작사하였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등 13곡이 찬송가에 수록되어 있다. 그는 그 당시 부흥운동에서 참석자들의 회심과 헌신을 일으켰던 찬송을 예배시간에도 부르게 하였다. 부흥운동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적 견해로 갈라진 상황에서, 웨슬리의 찬송은 교회에 커다란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 역시 예정론 대신 만민구원론을 선택한 알미니안주의자였다.

아이라 데이비드 생키(1840-1908)는 '복음송의 아버지'라 불리는 작곡가이며 찬양사역자이다.

〈9면으로 계속〉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소그룹모임: 오전 12:40
새 벽 기 도 회: 오전 5:30
수 요 저녁 예배: 오후 8:30
금 요 기 도 회: 오후 8:30
한국학교: 오전 9:30(토)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국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훈련: 오전 10:00 화,토
Tel.(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사이드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저녁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전교인특별새벽예배: 매주 토요일 오전 5: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주일 2부 오후 1시50분
주일학교 오후 1시50분
청년예배 오후 3시2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347)513-1351 ,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www.kapcq.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김성훈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 오전 6:00(월-금), 오전 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Tel.(604)584-5780, www.pcov.org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Paulo Cep 01528-010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리더십 코멘터리 (125)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크리스마스 리더십

소통의 달인 예수그리스도, 고독, 근면, 섬김, 모범 보여
예수 리더십 실천하며 내 자신이 크리스마스의 선물되길

크리스마스에 대한 4가지 조사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지의 법률담당 편집자로 일했던 리스트로벨은 기자로서 사실, 증거, 자료, 구체적인 현실 같은 것들에 훨씬 더 흥미를 느끼던 사람이었다. 그는 처녀는 임신할 수 없고, 아기가 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크리스마스는 미국이라는 거대 기업의 탐욕에 놀아나는 연례적인 소비의 향연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던 스트로벨이 불가지론자였던 아내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복음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기자의 예리함으로 크리스마스의 근원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사건"이라는 타이틀로 책을 출판하여 목격자 증언, 과학적 증거, 행적의 증거, 예언의 증거 등의 4부분으로 크리스마스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게 된다.

크리스마스의 3가지 약속, 3가지 질문

크리스마스라는 단어가 가진 뜻은 "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기뻐하고 경배한다"는 의미이다. 크리스마스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며,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신 '용서'의 약속 그리고 조건 없이 모든 이들을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 사랑'의 약속이다. 세 가지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미 행하신 것이며, 동시에 우리를 통해 그 약속을 전하고자 하시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행해야 할 이들 세 가지 과제 중에서 아직도 당신이 행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 언제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가? 이번 크리스마스가 바로 그 때가 될 수 있겠는가?

크리스마스에 나타난 5가지 리더십

성탄절에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산타클로스를 가장 많이 떠올린다.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는 뒤로 밀려나 있다. 성탄절을 맞는 우리 모두에겐 예수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흑암 속에 있었던 예수 탄생 때의 세상처럼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흑암 속에서 길을 잃고 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을 다시 돌아봐야할 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5가지 리더십을 살펴본다.

①소통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는 소통의 달인이셨다. 그분은 당시 가장 무시당했던 죄인들과 어울리며 소외된 자들을 격려하셨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 같은 부자들과도 교류하며 상류층에도 문을 닫지 않으셨다. 로마 군인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로마 군인과도 소통하셨고, 율법학자들과 대립각을 세우셨지만 니고데모와 같은 율법학자에게 진리의 교훈을 주셨다. 오늘 우리는 수많은 갈등과 대립으로 분열되고 방황하며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통의 리더십을 배워야할 때이다.

②고독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는 고독한 리더였다. 그분은 소통의 달인이셨지만 소통이 자칫 인기에 영합하는 태도로 타락할 위기 때마다 단호하게 고독한 리더십을 택하셨다. 안식일 논쟁(막2:23-28)을 통해 율법의 참된 뜻을 해석하면서 율법주의자들과 율법 폐기주의자들의 어느 쪽의 눈치도 구애받지 않고 양 극단을 경계하며 진리를 선포하시는 리더십(마5:17)은 자연히 고독할 수밖에 없었다. 혼란의 와중에서 지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독한 리더십이 얼마나 리더에게 필요한 덕목인가를 깨닫는다.

③근면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는 근면의 리더였다. 그분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자들을 치유해주셨다. 밤늦도록 사역하시고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근면하게 일하셨으며 시간 관리를 잘하셨는지는 불과 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세상을 변화시킬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사역을 통해 입증된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근면의 리더십은 '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이나 불안에 매인 리더십이 아니었다. 정성을 다해 양육한 제자들에게 기꺼이 사역을 맡기시고 나눠주시는 '위임의 리더십'을 보여주셨다. 오늘날 일하기보다는 여가를 즐기는 문화가 지배적인 시대에 예수의 근면의 리더십은 다시 본받아야할 덕목이다.

④섬김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의 절정은 섬김의 리더십이다. "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는 목적대로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참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섬김을 보여주셨다.

⑤모범의 리더십: 예수 그리스도의 ' 섬김의 리더십'이 더욱 빛을 발하는 이유는 솔선수범의 태도가 그 기반에 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섬기러 왔다는 목적에서 한 번도 벗어난 일이 없었다. 제자들에게 먼저 섬김의 도를 보여주셨다. 용서하라고 가르치시고 스스로 용서의 본을 보여주셨다. 기도하라고 가르치시고 스스로 기도의 본을 보이셨으며, 죽기까지 사랑하라고 가르치시며 스스로 십자가에서 그 가르침을 지키셨다.

인터넷과 SNS 시대에 쏟아지는 말에 비해 행함은 빈곤하고, 화려한 약속은 많지만 담백한 실천이 없는 시대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범의 리더십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더욱 절실하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막10:44-45). 바로 이것이 성탄절의 목적이다. 성탄절을 맞이하는 이때, 우리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을 되새겨 보면서, '나는 얼마나 섬기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겠다. ' 나는 얼마나 내 주위의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가?' 예수의 리더십을 실천하며 내 자신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되자. 메리 크리스마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퍼시픽대학교 교수)

인생의 겨울

올해도 어김없이 12월이 왔다. 12월은 한 해의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많은 지역에서 겨울을 상징하는 달이다. 폴 투르니에의 책 제목인 " 인생의 사계절"처럼 자연에 사계절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 새싹이 돋는 어린 시절을 지나 푸르른 젊음을 지닌 청년기, 열매를 맺는 중년이 있다면 인생을 마무리 하는 겨울도 다가온다. 일곱 형제의 막내인 내 나이가 육십이 넘으면서 자연스레 인생의 마지막 기간인 노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언니, 오빠, 형부들이 칠십을 넘어서서 팔십에 이르게 되니 인생의 황혼기가 내 주위에 바짝 다가온 것을 느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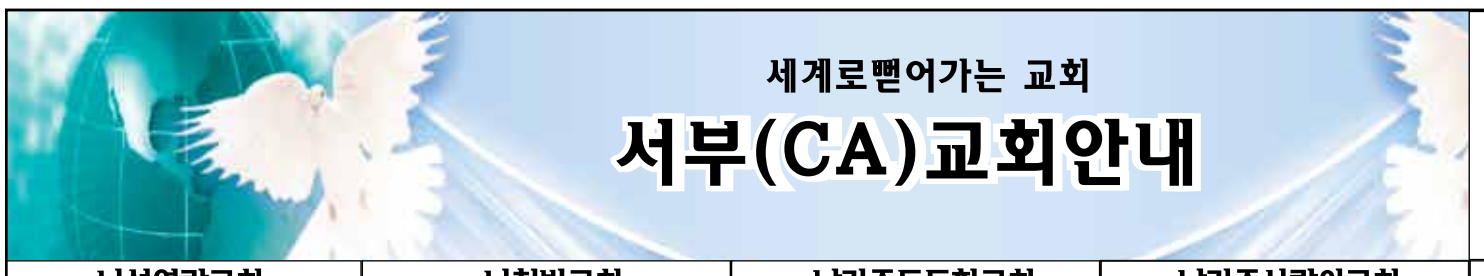
특히 점잖고 깍듯이 예의 바르던 둘째 형부가 몇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나는 인생의 연약함과 노년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노년에 대한 책을 읽으며 이제라도 노년학에 대한 공부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교회는 노년기를 맞는 성도들을 위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도 생각해보게 되었다. 마침 지난달에 교인 평균연령이 높은 어느 교회에서 노년기에 대한 세미나를 부탁했다. 그동안은 세미나를 인도할 때 주로 교사훈련, 자녀양육을 주제로 강의를 했었기에 노년기에 대한 세미나는 나에게도 새로운 내용을 준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미나를 위해 책과 논문들을 읽고 한국에서 만든 유튜브 내용들도 살펴보았다. 한국에도 인구 고령화에 따른 양로원 시설이 늘어나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에 연관된 노인에 대한 많은 교육 비디오들이 나와 있었다. 노년기의 문제와 원인, 노인상담 시 주요 이슈들, 노년기에 새로운 취미를 개발한 사례, 환경적인 이유로 할 수 없었던 학업에 뒤늦게 열중하는 노인들에 대한 소개 등 다양한 자료들이다. 거의 대부분 백세시대를 어떻게 활발하게 그리고 여유 있게 살아갈 것인지가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년기를 잘 계획하며 준비해야 하는지에 관한 자료는 거의 볼 수 없었다.

폴 투르니에는 인생이 선택이라면 이 땅의 보물들이 빛을 잃는 노년기에는 선택이야말로 최고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살아 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에서 무엇이 가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고, 그 가치에 맞게 선택하며 남은 세월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노년기의 과제라는 의미에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어느 책에서 읽은 것처럼 "나는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이 구체적으로 노년기의 현명한 선택을 도와줄 수 있다. 또한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고 이 땅을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묵상은 순종과 실수를 반복한 우리의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게 하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 삶을 빚어 오신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준다.

낯 설은 온라인 강의에 열심히 참석해주신 분들과 함께 줌으로 두 번의 세미나를 인도한 시간은 내게도 귀중한 경험이 되었다. 마치 언니 같고 형부 같은 분들이 인생의 겨울을 믿음 안에 준비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기회가 되었다면 감사한 일이다. 이사야서 46장 3-4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세미나를 마쳤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겨울은 쓸쓸한 계절이다. 이 땅에서 맺은 모든 인연을 뒤로 하고 떠나야 하는 계절이다. 그러나 인생을 잘 마무리 하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갈 준비를 하는 계절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설레는 마음을 안고 겨울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인생의 겨울이후에 올 영원한 구원의 봄이 기다리기 때문이다.

lpyun@apu.edu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6: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 (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I www.youngnak.com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어)
주 일 학 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연합예배: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562)691-0691, Fax.(562)691-0698, www.nachim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Youth예배: 오전 11:0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cebook.com/srcsc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20
주일2부 예배 : 오전 9:2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20
젊은 이 예배 : 오후 1:20
영어권(장소:KDC, 킹덤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모임: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주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213)381-2202, www.mpcl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11:30
일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949)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11:30
수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Tel.(323)737-3009, Cell.(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협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10시-오후4시30분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회 평신도 여성리더
사역: 1. 목회상담
2. 가정사역세미나
3. 말씀사역
4. 네트워크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Tel.(714)446-6200, www.gracemi.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예배: 오후 1:30(청년)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새 벽 기 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망회: 오후 7:20(금)
Tel.(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www.gcjc.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14)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310)530-4040(CH), www.cornerstonetv.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본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본당)
E M 예 배 : 오전 9:45 (101호)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본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본당)
수 요 예 배 : 오후 8:00 (본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5:30 (본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핌(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ulul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덕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30(토)
수요모임: "어성경이 읽어지네"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목회서신

믿음은 축복입니다

김요섭 목사
(열매교회)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지난 11개월 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한 전염병입니다.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 놓았고, 거의 모든 나라들의 경제가 위축되게 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12월 14일부터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이 투여되기 시작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의 대유행도 이제 긴 터널의 끝자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병이 시작될 때 사람들은 하루 속히 백신이 개발되기를 바랐습니다. 전염병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항체를 소유하거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백신 연구 개발자들의 노력으로 마침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항하여 항체를 형성할 수 있는 백신을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개발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1개월 만에 백신을 개발하였습니다. 백신을 개발한다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데 5-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우리들이 겨울철이 되면 접종하는 독감 백신을 개발하는데 70년이 걸렸습니다. 1600-1800년에 유럽의 전체 사망자의 25%를 죽음에 이르게 한 흑사병의 백신을 처음으로 투여한 일이 1921년이었고, 1924-1928년에 이르러서 결핵 백신의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소아마비 백신 개발은 29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있는 에이즈, C형 간염, 사스, 메르스 등과 같은 질병과 전염병의 백신은 아직도 개발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1981년 처음으로 에이즈가 발견되고 현재까지 3,790만명이 사망하였는데 아직도 백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15일 현재까지 전 세계 7,340만명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고, 163만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미국의 1,656만명 이상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30만명 이상이 사망하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는 10%의 사람들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고, 2만1천명이 넘게 사망하였습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은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코로나바이스 백신이 개발되었고, 투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 소식이 아닌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행한 소식도 접하게 됩니다. 12월 3일부터 7일에 시카고대 여론연구센터에서 사람들에게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투여 받을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였는데, 기회가 주어지면 47%가 접종을 할 것이라고 응답하였지만 26%는 접종을 거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음모설, 백신의 부작용에 대한 두려움,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의구심 등의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백신의 효능이 95%에 이르게 됨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축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죽음의 공포에서부터 구원해 줄 수 있는 백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접종을 거부합니다. 어떤 사람은 얄팍하게 다른 사람이 접종하고 난 후 백신의 안정성이 보이면 그때 가서 접종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이 접종하기도 전에 코로나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어서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의 앞에 자신을 살릴 수 있는 백신이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백신을 믿지 못하기에 접종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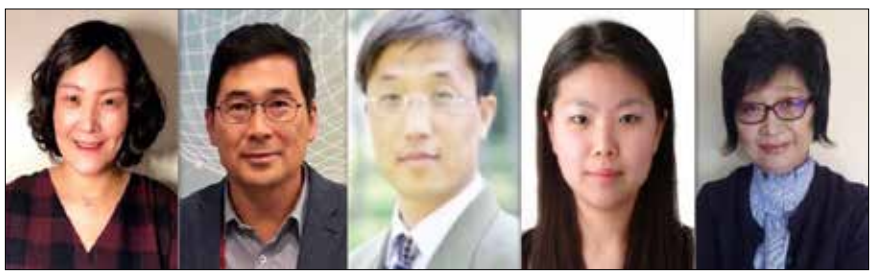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히 불못에서 신음하여 살아가야 할 우리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해주셨다는 기쁜 소식을 마치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의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처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이 있다고 말을 해주어도 믿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음을 소유했다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살후 3:2)

yosupbois@hotmail.com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시상식 열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 정기총회 열고 전 임원 연임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당선자들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이하 세기언, 회장 조명환 목사)가 주관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시상식이 지난 12월 10일 오후 2시 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세기언 회원들과 공모전 관계자 및 수상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조명환 목사(크리스천위클리 발행인)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시상식에서는 임승쾌 장로(크리스천타임스 발행인)의 기도, 남가주 기독교서점협회장 전인철 목사의 설교, 이성자 전도사(미주크리스천신문 LA지사장)의 수상자 소개, 백승철 목사(에피포도 예술인총연합회 대표)의 심사평이 있은 후 시상식이 진행됐다.

백 목사는 이날 "올해 독후감 공모전의 특징은 참가자들이 북미주 지역은 물론 브라질, 파라과이 등 남미와 몽골까지 넓어진 것과 독후감 작성법에 맞게 쓰여진 작품들을 받게 된 것"이라며 "그동안 독후감 공모행사가 6회까지 개최되면서 한 번도 최우수 수상자를 선정할 수 없었는데, 금년에 마침내 최우수 수상자를 선정하게 된 것은 해를 거듭 할수록 좋은 작품들이 응모된다는 증거이며 이는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심사평을 했다.

이날 '말그릇'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송정임 사모(버지니아 세인트존스연합감리교회)는 "큰 영광이다. 뽑아주신 심사위원과 이 같은 기회를 열어준 세기언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침묵'으로 우수상을 수상한 김봉춘 선교사(몽골 베다니마을교회)는 "2001년부터 몽골 선교사로 사역중이다. 팬데믹으로 인해 사역이 중단되다시피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딸이 여러 가지 글 모집광고를 모아 보내주는데 세기언의 광고를 보고 응모하게 됐으며 우수상의 영광을 누려 감사하다"고 말했다.

'침묵'으로 장려상을 수상한 손문식 전도사(은혜한인교회)는 "'침묵'이란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는데 일본선교 중 일어난 순교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크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면서 내 삶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 지길 다짐했다"고 말했다.

'말그릇'으로 장려상을 받은 한원 권사(산호세 임마누엘교회)는 "독후감을 쓰면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참으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다. 코로나로 모두 어려움가운데 처해 있지만 이런 때 어떤 말로 서로 위로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침묵'으로 장려상을 받은 전효진 사모(애틀란타한인교회)도 "팬데믹으로 제약된 생활 속에 있었는데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세기언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500달러와 상장, 우수상에는 300달러 상금과 상장, 그리고 장려상에게는 200달러와 상장이 전달됐다. 이날 시상식은 서종천 목사(크리스찬투데이 발행인)의 축사가 있은 후 축도로 마쳤다.

이날 줌 미팅에서는 그동안 총회에서 거리와 시간상 문제로 참가하지 못했던 브라질의 남미복음신문 박주성 발행인이 참석해 상파울 교계소식을 전했고 브라질 한인들을 위한 일반 온라인 신문 '뉴스훅'을 창간했음을 알리기도 했다.

한편 시상식이 끝나고 열린 2020년 세기언 정기총회에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행사가 불가능했으므로 금년의 회장단이 1년 더 연임해 줄 것을 결의했다.

〈박준호 기자〉

문화선교원 시전 12월 시로드리는 예배가 줌으로 열렸다

'언어의 주인' 이신 하나님께 언어의 예물드려

문화선교원 '시전' 제12회 시로 드리는 예배

문화선교원 '시전'(시와 찬미의 전당, 대표 이인미 전도사)에서 개최하는 제 12회 '시로 드리는 예배'가 지난 12월 5일 줌으로 열렸다.

이날 예배는 8주간 13기 QT를 통한 시 창작 수업을 마친 이들과 시전 동인들 19명이 함께 '언어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언어의 예물로 올려드리는 예배였다. 특별히 이번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이 진행돼 한국을 비롯 인도, 메릴랜드에서도 참가했다.

신병옥 목사(로스펠리즈교회 담임) 기도로 시작된 이날 예배에서 정종원 목사(아이엠교회 담임)는 '내 입의 두신 새 노래(시 40: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정 목사는 "힘은 얼마 가지 않지만 시와 찬미는 영원하다. 시인이나 예술가들이 새 것만을 추구하다보면 변질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새 노래의 바른 정의는 그 궁극적 관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며 "시와 찬미의 창작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시도 그 사람의 성장만큼 성장한다. 새 노래의 힘과 열매는 영향력이다. 그 열매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함으로 의지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시전의 작업과 열매가 풍성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백승철 목사(에피포도교회 담임, 문학평론가)는 격려 말씀을 통해 "내가 시전을 사랑하는 것은 삶으로 드리는 시의 예배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눈물이 있고 진실이 배어 있다. 시인은 시로서 말해야 한다. 성장이 보여 감사하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단체인 게 확실하다"고 격려했다.

이번 시로 드리는 예배는 올해 열매로 에피포도문학 신인상 최명희 시인이 수상등단 하는 축하로 이어졌다.

이인미 전도사는 인사말을 통해 "이 사역이 순결하게 가고 싶다. 하나 되고 싶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이들을 잘 인도하는 지도력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중보기도로 예배를 마쳤다.

한편 다음 학기는 내년 초에 개강될 예정이다.

▲문의: (818)590-6469

〈정리: 박준호 기자〉

CMF선교원 12월 모임에서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CMF 선교원 12월 정기 예배

CMF선교원(대표 김철민 장로)에서는 지난 12월 5일 오후 5시 CMF회관에서 12월 정기모임예배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했다.

김철민 장로 사회로 시작한 예배는 CMF 찬양 팀의 은혜로운 찬양 후 김유진 선교사(예멘)가 대표기도한 후 김재문 목사(사랑의빛선교교회 원로)가 '성령님과 복음사역과의 관계(행10:38)' 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재문 목사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며 "전도가 힘들고 성도가 줄어드는 결정적 이유가 바로 성령과 능력으로 복음 사역을 하지 않고 사람의 신학과 지혜로 사역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법칙'은 복음사역은 반드시 성령님과 동역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설교 후 더글라스 김 목사(HYM대표)의 인도로 여러 가지 기도제목으로 회개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드린 후, 축도로 마쳤다.

한편 CMF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홈레스들에게 선물과 음식을 나누고, 베네수엘라에 의료품과 구호품을 보냈으며,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방송결혼교실을 실시하고 있다.

▲문의: (562)483-0191

〈정리: 박준호기자〉

굿네이버스 USA 는 크리스마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식량 위기국 아동급식 지원위해

굿네이버스USA 크리스마스 캠페인 실시

국제구호개발단체 굿네이버스USA(회장 이일하)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미주 한인교회와 함께 식량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의 아동을 돕는 캠페인을 실시한다.

코로나19로 아프리카 및 중남미의 저개발국가의 식량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하루 12,000명까지도 사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들에게는 더욱 큰 피해가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일하 회장은 "코로나19로 모두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굿네이버스가 활동하고 있는 저개발국가의 아동들은 식량위기로 인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다. 성탄에 그 기쁜 소식을 소외된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매월 10달러면 아프리카 최빈국 중에 하나인 니제르의 아동 한 명에게 약 한 달간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다. 후원은 개인적으로 10달러씩 후원도 가능하며 교회에서 특별 헌금해 굿네이버스로 후원금을 보내면 된다.

굿네이버스는 찬양 사역자 조수아, 소리엘 장혁재 교수의 특별 메시지와 함께 찬양이 담긴 영상을 교회 크리스마스 예배 및 새벽기도 등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후원 방법은 https://www.kr.goodneighbors.us/small Venmo: @goodneighbors 체크 보내실 곳 Pay to Good Neighbors, P.O Box 6086 Orange, CA 92863

▲ 문의: (844)357-7797

〈기사제공: 굿네이버스 USA〉

개혁의 땀방울

〈7면에서 계속〉

그는 19세기 최고의 복음전도자로 손꼽히는 침례교 평신도 설교자 D. L. 무디(1837-1899)와 거의 30년간 동역하였다. 지성보다 감정에 호소하는 설교를 지향했던 무디와 마찬가지로, 생키 역시 음악적 기교보다 간단한 복음의 메시지가 담긴 찬양이 회심과 헌신을 불러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대중성이 있는 음악에 집중하였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어려운 일 당할 때' 등 모두 8곡이 찬송가에 수록되어있다. 생키가 출판한 복음성가집이 미국과 영국에서 불티나게 팔렸고, 복음송을 즐겨 듣고 부르는 인구가 대거 늘어났다. 물론 전통적 교회는 생키의 음악에 대해 냉담했다. 성경구절이나 신학적 내용이 담긴 가사 대신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서술하는 가사, 그리고 정교함이 사라진 감성위주 음악을 극렬히 거부하였던 것이다.

생키 이후로 개인의 체험과 간증을 가사에 담은 복음송의 인기는 날로 더해갔다. 생후 6주 만에 실명한 뒤 평생 장애를 안고 살면서 많은 아름다운 신앙시를 많이 남겼던 패니 제인 크로스비(1820-1915)를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존 스위니, 윌리엄 도앤, 로버트 로우리 등 유명한 복음송 작곡가들이 그녀의 시에 곡을 붙였다. '예수 나를 위하여' 인애하신 구세주여' '나의 갈길 다 가도록' '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주께로 한 걸음씩' 등 성도들의 애창곡 22개가 찬송가에 수록되었다.

끊이지 않는 갈등

20세기에 들어와 교회음악에 매우 큰 변화가 찾아왔다. 부흥운동에 호의적인 교회들은 예배시간에 복음송을 부르는 것을 꺼려하지 않았다. 복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기독교라디오방송이 시작되면서 복음송이 급속히 보급되어 성도들에게 가정에서도 부르는 익숙한 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흑인영가, 컨츄리음악, 포크음악, 소프트록 등 장르의 폭도 매우 넓어졌다.

더욱이 은사주의운동이 음악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교회음악은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되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세례, 성령의 초자연적 기적, 그리고 영적능력 등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찬양이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길이며 성령의 기름부음을 체험할 수 있는 도구라고 확신하였다. 초창기 복음송은 선포될 말씀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하였다면, 은사주의운동의 찬송은 그 자체가 은혜의 통로였던 것이다.

〈10면으로 계속〉

교계 게시판

2021년 UMC 한목협의 첫 웨비나

연합감리교 목회강화협의회(회장 정희수 감독, 사무총장 장학순 목사)는 2021년 첫 웨비나를 '잠재적 가능성에서 성장으로!(From Potential to Growth!)'란 주제로 목회자를 위한 소통과 돌봄의 기술, '코칭(Coaching)'에 관해 2021년 1월 11일, 1월 25일, 2월 1일 등 매주 월요일에 서부시간 오전 10시, 중부시간 정오, 동부시간 오후 1시에 개최한다(90분 동안 줌으로). 강사는 권수영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장 겸 연합신학대학원장이다. 이번 웨비나 시리즈 강의 3번 모두를 참여하면 0.25 Unit 연장교육학점을 받을 수 있다.

▲문의: (404)460-7937(ext 1219)

연합감리교 남가주지역 연합새벽부흥회

UMC 칼팩연회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회(회장 김낙인 목사)는 12월 21일(월)부터 31일(목)까지 '2020 한인연합감리교회 연합새벽기도회'를 '보라 새 일을 이루리라'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온라인으로 열리는 이번 연합새벽기도회에서는 27일(주일)을 제외한 10일간 진행되며 10명의 목회자들이 하루씩 말씀을 전한다. 새벽연합기도회를 열면서 중보기도의 시간도 갖게 된다. 연합부흥회 강사는 △21일 김낙인 목사(남가주주님의교회) △22일 김호용 목사(LA복음연합감리교회) △23일 강현중 목사(토렌스KUMC) △24일 남재헌 목사(옥스나드KUMC) △25일 구진모 목사(윌셔KUMC) △26일 이성현 목사(샌디에고 KUMC) △28일 김용근 목사(크레센타밸리 KUMC) △29일 정영희 목사(드림KUMC) △30일 오경환 목사(시온KUMC) △31일 류재덕 목사(밸리KUMC).

▲문의: (626)965-9191

남가주사랑의교회 임직 및 은퇴 감사예배

남가주사랑의교회(담임 노창수 목사)는 임직 및 은퇴 감사예배를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All Glory to God)'라는 주제로 20일(주일) 오후 3시 30분 온라인 및 야외예배로 갖는다.

▲문의: (714)772-7777

뉴욕가정상담소 무료 영어수업

뉴욕가정상담소가 주최하는 직업교육프로그램이 2021년 2월부터 5월 중순까지 총 15주에 ㅔ 걸쳐 열린다. 취업 희망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무료 영어수업은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총 8시간 진행되며(시간은 추후 공지), 줌을 이용한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지원한 후 배치평가 결과에 따라 초·중·고급반 나뉜다. 영어수업 강사들은 영어교육경험이 풍부한 원어민 교사로 취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영어를 가르칠 예정이다.

▲문의: (917)887-9173 김승희, 이메일: seunghee.kim@kafsc.org

요한웨슬리성화운동 세계본부 대표회장 김명옥 목사 선임

요한웨슬리성화운동 세계본부는 12월 7일, 김명옥 목사(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총회장)를 2020-2021 회기 대표회장에 선임했다.

세계본부 설립은 요한웨슬리를 뿌리로 두는 감리교의 UMC(연합감리교)와 KMC(기독교대한감리회), 성결교의 미주성결교회와 예수성결교, 구세군, 나사렛, 오순절의 하나님의성회(AG)와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등 8개 교단이 함께 한다.

현재 조직은 장석진 상임고문 등 고문 6명, 이만호 목사 등 12명의 공동대표, 지인식 목사 등 17명의 공동회장으로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다. 또 기획과 운영, 사업총괄을 담당하는 상임회장 김태수 목사, 사무국장 김동권 목사를 비롯한 사무국 임원들이 있다. 이밖에 이사그룹과 워킹그룹을 편성해 실제적인 사역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문의 및 연락은 상임회장 김태수 목사(201-574-5720), 사무국장 김동권 목사(201-394-7821)에게 하면 된다.

〈정리: 유원정 기자〉

NYU Langone Health

FAMiLI STUDY Food And Microbiome Longitudinal Investigation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참여자 모집 안내

- 미국 국립보건원(NIH)과NYU 의대 훼밀리 연구팀 (총책임자: 안지영 교수) 은 세계 최초로, 여러 민족의 식습관, 환경, 박테리아와 만성 질병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특히 미국에 거주하시는 한국인의 질병발생 및 위험요인을 연구하여, 질병예방 및 보건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 의료보험이나 신분에 관계없이, 40 세 이상인 미국내 거주자는 한번 참여 하실 수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을 보내 주시면,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집에서 완료 하신 후, NYU의대로 무료 우송해 주시면, 25불 기프트카드를 보내 드립니다.

NYU 의과대학 훼밀리 연구 연락처

FAMiLI Study
(Hee Choi, MS,RD)
NYU School of Medicine
180 Madison Avenue # 3-23
New York, NY 10016

전화: 646-501-3673 | 646-501-3674
문자: 929-410-4475
이메일: hee.choi@nyulangone.org
웹사이트: http//www.nyufamili.org/kor/index.php

SCAN ME

한분 한분의 참여는 우리의 2세에게 보다 건강한 사회를 남겨 줍니다.

여러 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3차로 나눈 할렐루야대회 등 연중계획 발표

47회기 뉴욕교협 1차 임실행위, 신년하례준비기도회

제 47회기 뉴욕한인교회협의회 1차 임실행위원회 및 신년하례만찬 1차 준비기도회가 12월 10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선한목자교회(담임 박준열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문석호 목사는 "어려운 시기지만 해야 할 일은 있다. 할 일들이 펜데믹 상황과 연결돼 있지만 잘 하도록 하겠다"며 △미자립교회 지원 △한인 이민사회와 연결 △다음세대 집중과 △세미나를 통해 당면 문제를 해결하도록 좋은 세미나는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하고 "힘든 일을 당한 회원들이 있으면 임원들에게 연락해 달라, 돕겠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한 47회기 연중행사 계획은 다음과 같다.

△2021년 신년하례회(한인사회 초청): 1월 21일(목) 저녁 7시, 장소 미정 △미자립교회 목회자 초청 나눔의 시간: 2월 4일(목) 오후 3시 효신장로교회 △세미나(1) "교회와 성도는 지구 환경 위기에 어떤 대안을 내놔야 하는가?": 2월 18일(목) 오전 10시 △목회자연합기도회(목사회 연합): 3월 4일(목) 오전 10시30분 △2차 임실행위원회 및 세미나(2) "세속사회에서 성도는 어떻게 주일을 성수해야 하나?": 3월 16일(화) 오후 2시 △봄을 여는 희망 음악회: 3월 21일(주일) 저녁 7시 △부활절 연합예배 및 찬양: 4월 4일(주일) 오후 5시 △1차 할렐루야대회(청소년 설교대회): 5월 2일(주일) 오후 2시 △세미나(3) "이민가정은 자녀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3차 임실행위: 6월 3일(목) 오전 10시30분 2차 할렐루야대회(다민족): 6월 20일(주일) 오후 4시 △3차 할렐루야대회(홈리스) △청소년 선교지 탐방: 7월 5-14일 △선교지 탐방(몽골, 스탄, 터키): 8월 16-27일 미국 역사유적지 탐방: 9월 목회자 초청 나눔의 시간: 9월 △4차 임실행위, 세미나(4) "신자의 정치참여를 어떻게 하는가?": 10월 7일(목) 오전 10시 △정기총회: 10월 25일(월) 오전 10시 30분.

주소록은 192페이지 분량의 수첩으로 대신하며 뒷면에 비즈니스광고를 삽입해 1천권을 발행한다고 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부회장)가 발표했다.

이번 회기에 새로 영입된 혁신기획위원회 유상열 위원장은 "위원회의 임무는 '변화'"라며, "내년 2-3월 증경회장 1명을 포함해 9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교협 헌법과 세칙 등 전반에 걸쳐 현시대에 맞게 교협이 나갈 방향을 모색하고, 임실행위원들과 합의와 공청회를 거쳐 수정안을 총회에 상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47회기 뉴욕교협 1차 임실행위, 신년하례준비기도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청소년센터 사무총장 김준현 목사는 △설교대회 △미디어 사역 △온라인 학원사역 △청소년 할렐루야대회와 친교로 △농구대회와 △EM사역자 네트워크 모임을 가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예산안은 준비가 안돼 감사 참석 하에 임원회에서 통과하기로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전광성 목사(신년하례 준비위원장) 인도로 기도 최호섭 목사(작은교회협력분과), 설교 박준열 목사(원주민선교분과), 합심통성기도, 축도 이병홍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합심통성기도는 현영갑 목사(사이비언론대책위원)가 교협의 사역을 위해, 허윤준 목사(사회참여분과)가 이민사회를 위해, 이종선 목사(구제분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황영송 목사(청소년분과)가 차세대를 위해 각각 기도 인도했다.

〈유원정 기자〉

"거룩함을 좇으라" ...임원조직, 계획발표

제49회기 뉴욕목사회 성탄축하예배 및 이취임식

뉴욕한인목사회가 12월 14일 오전 10시30분 성탄축하예배 및 이취임식을 가졌다.

이날 제 49회기 목사회는 "거룩함을 좇으라"(Strive for the Holiness, 히12:14)라는 표어를 정하고 임원 및 실행위원회 조직을 발표했다.

회장 김진화 목사(미래비전교회 담임)는 "이제 우리는 목사다움을 회복할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벧전1:16)고 말씀하셨다. 목사는 거룩성과 복음전파 사명을 받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책임감과 영적 자격을 갖춰야 한다. 영적 공동체로서의 존경받는 목사회, 거룩함을 지키는 목사회로 영성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목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인사를 했다.

이임하는 이준성 목사는 "관용"과 "포용"을 언급하며 "이들은 대화에서 출발하는데 지난 회기 동안 대화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하며 49회기도 변함없이 도와달라"고 인사했다.

이준성 목사는 이임사에 앞서 총회 때 미처 전달하지 못한 감사패를 류승례 목사에게, 또 회기를 출발하는 김진화 목사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새 임원은 다음과 같다.

△회장 김진화 △부회장 마바울 △총무 유태웅 △수석협동총무 장규준 김정숙 △서기 류승례 △부서기 정인수 △회계 임태현 △부회계 노기명 △기획위원장 임재홍 △기획위원 김희숙(이상 목사).

또 49회기는 행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제49회기 뉴욕목사회 성탄축하예배 및 이취임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설교집 출판: "거룩함을 좇으라"(예정)라는 이름으로 영감있는 뉴욕의 대표 목사 100인 설교집 발행, 원고마감 2021년 1월 31일(life9191@gmail.com) △신년산상기도회(금식기도성회): 2021년 1월 31일, 준비위원-이성헌 안승백 목사 △영성세미나(원어성경신학자 초청): 7월 5일, 준비위원-전광성 정관호 목사 △야외친목회(BBQ파티): 8월 30일, 준비위원-오태환 이진하 목사 △조국통일기도회(한국 판문점, 성지방문): 9월 13-17일, 준비위원-유태웅 김연규 목사 △사모위로의 날(힐링투어): 10월 7일, 준비위원-김영환 김희숙 목사.

이외에 신학교와 조인트 프로그램으로 목회자연장교육을 계획했다.

1부는 성탄감사예배는 부회장 마바울 목사 인도로 기도 권캐더린 목사, 성경봉독 김정숙 목사, 축가 심지수 전도사, 말씀 문석호 목사, 헌금기도 임태현 목사, 축도 황동익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교협회장 문석호 목사(뉴욕효신장로교회)는 "신음하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로!"(롬 8:18-26)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현 시대적 상황은 온 세상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으며 해산의 고통을 겪는 여인과 같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면 자연도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다. 이들은 부활에 나타날 우리 모습인데 그러면 현실세계에서는 회복이 불가능한가?"라고 묻고 "아니다. 바울은 미래 부활의 모습이 공존하는 현실과 고통의 해산 후에 있을 출산,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복음전파의 사명을 다하라는 말씀에 소망을 갖자"고 말했다.

2부 이취임식은 총무 유태웅 목사 사회로 시무기도 이병홍 목사, 이임사 이준성 목사, 목사회기 인계, 취임인사 김진화 목사, 새임원소개, 감사/공로패 증정(이준성 목사/김영환 목사), 임명장 수여(기획위원장 임재홍 목사, 신년기도회 준비위원장 이성헌 목사), 축사 이만호 목사 박태규 목사, 격려사 허걸 목사 안창의 목사, 권면 신현택 목사 김원기 목사, 폐회/오찬 기도 순서로 이어졌다.

축사, 격려사, 권면을 맡은 증경회장들은 회장 김진화 목사가 기획력이 탁월하다며, 겸손하게 섬기며 칭찬받는 목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유원정 기자〉

개혁의 땀방울

〈9면에서 계속〉

특히 세계적 조직을 지녔던 빈야드교회 지도자 존 윔버(1934-1997)는 젊은 시절 색스폰 연주자로 주목받던 음악인이었다. 그는 초창기부터 기타에 맞추어 복음성가를 부르며 예배를 드렸고, 본격적으로 은사운동에 가담한 그는 자신의 재능을 살려 예배사용을 위해 새로운 곡을 작곡하였다. 나아가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근거하여 전통적 예배의 형태를 벗어나 '열린예배'를 시도하였다. 그는 '찬양과 경배' 모임을 직접 인도함으로 새로운 찬양의 전통을 세운 것이다. 한국교회가 그로부터 영향을 받은 셈이다.

이미 언급한대로 현재 한국교회에서 사용하는 찬송가는 매우 혼합적이다. 알미니안신학과 칼빈주의신학을 표방하는 가사가 모두 담겨있다. 이전에 보급되었던 '개편찬송가' 또는 '새찬송가'에 비해 국내 작사가와 작곡가들의 작품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파들이 공동으로 편집하면서 특정한 몫을 배당한 것과 같은 느낌을 쉽게 받을 수 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인 연합집회에서, 한쪽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다른 쪽에서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과 같이 서로 다른 가사로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지 않아 찬송가 가사의 연합을 시도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그 결과 한국교회사에서 신학논쟁을 벌였던 극보수신학자와 극 진보신학자가 기록한 가사가 함께 포함되어있다.

찬송가에 수록된 곡은 그 성격이 성경66권 정경과 같지 않다. 정경은 교회가 선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가 특별한 과정을 걸쳐 발견한 것뿐이다. 찬송가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교단을 대표하는 위원들이 선택한 곡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과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와 같은 곡을 주일예배시간에 부를 수 없던 때가 있었다. 찬송가에 수록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이 곡들은 '복음송 부록'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주일저녁예배를 포함한 다른 모임에서는 부르는 것을 허락했다. 그런데 새로 편집된 찬송가에 이 곡들이 수록되었다며 주일예배시간의 회중찬송으로 선곡되었다.

글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무조건 과거의 전통을 고집하거나 정반대로 새로운 것을 무엇이든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각 교회는 현재 성도들이 사용하는 찬송가와 복음송의 가사와 음악 형태를 자세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요한계시록에 천상의 예배가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경배에 집중되어있다. 믿는 성도들의 영원히 영광을 돌릴 찬양의 모습이다. 그 날이 오기까지도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홀로 그리고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을 찬양하는 특권을 지니고 있음을 잊지 말자.

covenantcho@yahoo.com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31)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2)미국의 정교분리(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

미국 정교분리(政教分離)의 출발은 미합중국 헌법이 만들어질 때 국교제를 부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정교분리(The 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는 자유의 원리이다. 그런 신앙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대서양을 건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 미국이다. 그런데 수정헌법 1조(Amendment 1)은 왜! 그 첫 조항부터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을까? 미국 수정 헌법 제1조(The First Amendment)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정교분리를 제정한 이유를 구체적 살펴보고자 한다.

a) 정교분리를 미국 헌법에 명시한 이유

영국처럼 한 교파가 정부의 지원을 독점하는 것이 '독점적 국교제'이다. 이 독점적 국교제의 가장 큰 문제는 영국의 국왕이 지배하는 교회, 영국의 국교회가 만들어짐으로 영국 사람들은 모두 국가교회인 성공회 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데 있다. 만약 국교회인 성공회에 가입하지 않고 타 교회에 가입하면 엄청난 종교적 핍박과 사회적 불공정한 대우를 받게 된다.

그렇다. 이 독점적 국교제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 신천지로 오게 되는 결정적 원인으로,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엄청난 차별과 핍박이 동반된 종교 악법이었다. 모든 프로테스탄트 교파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일반적 국교제(國教制)'와 종교에 대한 어떠한 종류의 정부 지원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국교제 폐지(廢止)' 두 가지가 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다. 즉, 기존 국교회나 회중교회를 배경으로 한 정치인들은 '일반적 국교제'를, 다른 교파의 지지를 받는 정치인들은 '국교제 폐지'를 각각 주장했다.

그때 소수였던 침례교인들이 국교제를 적극 반대했다. 그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영혼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믿어라 저것을 믿어라 라고 국가가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주장하는 토머스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제임스 매디슨(James Madison) 같은 '공화주의자들'과 결탁해 국교제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것이다.

드디어 1786년 제3대 미합중국 대통령이 될 제퍼슨이 '종교자유법(Bill for Establishing Religious Freedom)'을 통과시켰다. 최초로 미국의 자유헌법이 재정된 것이다. 즉, 국가는 특정 종교를 국교로 정할 수 없고, 특정 종교를 선호하거나, 특정 종교를 박해할 수 없다고 하는 사항을 헌법에 기재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국가와 교회의 분리인 국교분리(國教分離), 즉 정교분리였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정교분리의 '정(政)'자는 정치(政治, Politics)가 아니라, 정부(政府, Government)를 가리킨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교분리는 교회와 정치를 분리한다는 뜻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토마스 제퍼슨은 3가지 세속 정부의 정교분리 원칙을 규정했다.

첫째, 정치는 교회의 활동을 관여하지 말 것. 둘째, 정치는 교회에 해가 되는 법을 만들지 말 것. 셋째, 정치는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지 말 것. 이렇듯 미국 헌법의 정교분리 규정의 목적은 "세속 정부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윤영휘 박사는 "수정헌법은 연방정부의 권력을 제한해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자는 취지로 제정이 시도됐던 것"이라며 "이를 통해 연방정부가 각 주의 의사에 반해 전국적 차원의 국교를 정하지 못하게 됐다"고 그 의의를 설명했다. "로마제국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1,400여 년 간 서구 사회에서 권력과 공모해 독점적 또는 우월한 지위를 누려왔던 그리스도교가 처음으로 그 지위를 박탈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제 36대 린든 존스(Lyndon B. Johnson) 대통령이 하위법 조항에 일명 '존슨 수정헌법'을 만들었다. "성직자와 교회 등 종교단체가 특정 공직 후보자나 선거운동에 직·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를 위법 시에는 면세 혜택을 박탈하는 하위 법 조항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현재의 45대 트럼프 대통령은 헌법의 하위규정인 이 존스 조항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명령으로 '교회는 자유롭게 정치인 선거운동을 후원해도 교회 헌금은 면세혜택을 받도록 하였다.'

성직자와 교회의 선거운동도 일종의 종교행위로 간주하는 것이 미국헌법의 전통이다. 특히 쿠오모(Andrew Cuomo) 뉴욕 주지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란 미명(美名)하에 예배 인원 제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2020년 11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5대 4로 "코로나19 방역보다 종교 활동의 자유가 우선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잊혀져서는 안 된다"면서 "예배 참석 규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 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므로 2015년 6월 26일 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5 대 4 판결로 전 미주가 동시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것처럼, 현재 미주 전역에서 실시하는 일방적 교회봉쇄 및 참석제한은 불법이다.

b)미국 정부와 교회는 분리되었지만 교회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며 대통령과 의회 및 정부 지도자들과 함께 미합중국을 융성케 했다. 만약 위 미국 수정헌법 1조가 국가와 정치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뜻이 분명하다면, 초대 정부로부터 현재까지 교회가 국가에 대하여 정부와 정권에 대하여 정치 발언과 참여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1776년 7월 4일 독립한 이후 교회는 '국가에 충성스런 교회'로서 강성한 영향력을 계속 행사해왔다.

그 첫 번째 좋은 예시가 미합중국대통령 취임식이다. 미국 초대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1789년-1797년) 대통령으로부터 제 45대 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까지 반드시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 선서(Oath of Office)식을 거행한다. 그 때 신임 대통령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So help me God)"란 말을 취임식 선서 문장에 꼭 집어넣어 선서를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So help me God)"란 말은 대통령 취임 선서문에는 어디에도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모든 신임 대통령들이 이 말을 추가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하는 것을 자랑스런 취임식 전통으로 생각한다.

정교분리 '정(政)'자는 정치(Politics)가 아니라 정부(Government) 의미
교회가 정치적 영향력 행사하며 의회 정부 지도자들과 미합중국 융성케

둘째, 매년 국가기도일, 금식일, 국가조찬기도회 정례화, 상·하원 원목(Chaplaincy) 제도가 미합중국의 역사와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다.

셋째, 국가의 대소사를 존경받는 목사를 초청하여 자문을 구하고, 국가위기(國家危機, National Crisis)시 교회가 정부와 함께 기도하며 미국을 움직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1787년 연방헌법 제정 실패 직전 벤자민 프랭클린(Benjamin Franklin)의 기도회 제안이었다.

1787년 5월 필라델피아의 청사에서는 13개주 대표들이 모여 연방헌법제정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연설을 했다.

"우리는 지난 5주간 치밀한 연구와 지속적인 논리의 전개를 통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형태의 정부를 연구하고 우리에 맞는 정부를 구상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단히 실망스럽게도 우리는 정치적 해결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생존이 위협 당하던 영국과의 독립전쟁 중 우리는 바로 이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 받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 속에서 미래의 정부의 형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확신 하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지금 새로운 정부를 위한 헌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은 바벨탑의 건설보다 성공적이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우리가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날마다 목회자를 초청하여 기도회를 열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1787년 6월 28일 프랭클린의 그와 같은 제안은 그 자리에서 받아들여졌고, 3개월 후 현재의 미국의 연방헌법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탄생했다. 이와 같이 미국 수정헌법 1조의 정교분리(政教分離)의 분명한 의미는 교회가 정부에 대해 간섭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국가가 국교를 정하거나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는 뜻이다.

kimjoyh@gmail.com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승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www.bethelchurch.org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집회: 오후 8:00
유치, 유년, 중고등부:
(주일)오전 11:00, (금) 오후 8:00
Tel.(508)435-4579, www.bostonkorea.org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토요새벽기도: 새벽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00
수 요 예 배: 오후 8:00
영아, 유치, 유년예배: 오전 10:45
중,고등부예배: 오전 10:45
Tel.(704)877-6642, (704)529-0900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www.kppcseattle.org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702)749-9929, www.omychurch.org
7635 Dean Martin Dr, LV NV 89139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www.jejas.com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장용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백운영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킬린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비젼예배: 오후 8:00
토요청년모임: 오후 3: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Tel.(254)535-1842(H), (254)501-4933(C)
1000 E. Vetet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03)941-4447, www.mpcow.org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김형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EM)
수요찬양: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 (월-토)
Tel.(804)560-7500, www.ljkc.org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영어예배: 오전 8시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5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www.kucp.org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보조역할 차세대리더를 선교동력으로"

KWMA, '2020 제19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

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가 주최한 '2020 제19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한선지포)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교의 새로운 물결을 어떻게 일으킬지 고민하는 자리였다. 올해 설립 30주년을 맞이한 KWMA는 7-8일 유튜브를 통해 '새롭게 할지어다'(Get a New Heart)를 주제로 한선지포를 진행했다.

한국대학생선교회(CCC) 김장생 선교사 등 참석자들은 8일 결의문을 통해 "한국교회, 한국선교가 변곡점을 지나 쇠퇴하고 있는 건 누군가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 때문"이라고 밝힌 뒤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 것을 결단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창의적이고 새로운 사역들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선교사들이 건강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총체적 지원에 나서겠다고 결의했다. 젊은 세대와 여성을 선교의 리더십으로 세우고 한국교회 모든 구성원이 일상에서 선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결의문은 이틀간 진행된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특히 둘째 날엔 '차세대 동원 선교운동' 방법을 모색하고 코로나19 이후 선교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비전선교단 조다윗 선교사는 '집단 트랙'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다.

조 선교사는 "젊은 사역자들이 개체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된다면 뜨거운 선교 동원 운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고민했다"면서 "2016년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국제로잔운동에서 처음 소개된 '영 트랙 집단화 모델'이 대표적"이라고 설명했다.

조 선교사는 "국제로잔운동에서 착안해 집단 트랙이란 용어를 만들었다"며 "보조 역할만 하던 차세대 리더들이 관계망을 형성해 선교과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영성을 교류하며 시너지를 배가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젊은 세대는 경험이 부족한 만큼 시니어 선교사들이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돕거나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장생 선교사는 코로나19로 모든 사역이 중단됐을 때도 선교의 기회는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CCC는 14개국에서 온라인 단기선교를 했고 한국에선 아프리카를 위한 기도모임을 가졌다. 김 선교사는 "우루과이는 사역을 전혀 하지 못한 곳인데 코로나19를 통해 온라인 단기선교를 가졌다"면서 "11명의 열매까지 맺었다"고 소개했다.

마지막 순서는 '새로운 물결(New Wave) 선교 대응'을 주제로 조용중 KWMA 사무총장과 박동찬 일산광림교회 목사, 온누리교회 2000선교본부 김홍주 본부장이 이야기를 나눴다. 대담자들은 코로나19로 난민과 국내 이주민 등 사역 방향이 확대됐다는 데 공감했다.

박 목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교회는 선교사와 협업해 난민 사역을 했고 연합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면서 "주도권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 생각하며 함께 선교한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앞서 첫날엔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교단 동원, 선교사 은퇴 등 주제별 논의를 가졌고 새로운 선교 도구로 부상한 영상·방송 제작 사례를 공유했다.

"북한에 기독교인 존재…"

강기총, 2020 통일준비 심포지엄

강원도기독교총연합회(회장 이수형 목사) 주최로 8일 강원도 춘천 세종호텔에서 '2020 통일준비 심포지엄'이 열렸다.

말테 리노(한국이름 이말테) 루터대 석좌교수는 '독일 선교사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국교회'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북한 기독교회 연맹을 자매교회로 인정하고 협력해야 한다"며 남한 교회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한교회는 남과 북의 화친을 위해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야만 한다"며 "기독교인은 이념적 편협을 넘어 객관적 토론을 위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보수적인 남한 기독교인이 북한에 기독교인이 존재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펴는데 전혀 이해할 수 없다. 교회사를 돌아볼 때 극심한 박해 시기에도 기독교인은 항상 존재했다"고 했다. 그는 독일 뮌헨대를 졸업하고 아우구스티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2000년 독일 바이에른주 루터회선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 받아 루터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이상민 의원 추진 평등법안' 반대

복음법률가회 "종교단체 예외조항 불분명…차별금지법과 유사"

복음법률가회가 1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준비 중인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안)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안과 별반 차이가 없으므로 강력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등법안이 종교단체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만, 조문이 불명확하고 적용 범위가 협소한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 차별중지명령 등 독소조항 때문에 사실상 차별금지법안과 같다는 이유에서다.

복음법률가회는 "종교적 예외 조항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설교 때 동성애와 성별변경에 대한 반대 의견 표현, 신학교의 동성애자 입학 거부, 동성애자 목사에 대한 안수 거부가 예외조항에 해당하는지 아닌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의 평등법안이 사회 전반에서 동성성행위와 성별변경 행위에 대해 반대할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전체주의적 독재조항을 갖고 있다"면서 "정의당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과 국가인권위원회가 준비한 평등법안과 큰 차이가 없다"고 분석했다.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는 "이 의원이 동료의원을 만나 '대전지역 목회자를 만나 설득작업을 벌였기에 문제없다'며 공동발의자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하지만 정상적 목회자라면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평등법안을 절대 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은 모두 주민등록제를 붕괴시키고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면서 "저출산 시대에 불필요한 '제3의 성'을 만들어 국론분열만 일으킬 평등법 제정 시도는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전세계 중보자들 생명위해 40일간 기도

캄선교회 '라이트하우스 5차 기도회' 하루 4만명 참여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 중보자들의 기도와 헌신을 막지 못했다.

캄선교회(KAM·대표 데이비드 차 선교사)가 주관한 '2020 라이트하우스 5차 기도회'가 11일 성료했다. 지난 10월 19일부터 40일간 진행된 기도회에 하루 평균 4만명 이상의 중보자들이 기도의 제단을 쌓았다. 이들은 십시일반으로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섬겨달라며 9억2000여만원을 헌금했다. 입양을 통해 80명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도 동참했다.

마지막 날 강사로 말씀을 전한 데이비드 차 선교사는 "요동치는 국제 정세와 힘겨운 국내외 상황에서도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끝까지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자"고 당부했다.

서울 서초구 더크로스처치에 특설 스튜디오를 제작해 진행된 5차 기도회는 유튜브와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통해서도 중계됐다. 선교회는 기도회 40일 중 마지막 10일 동안 참여자들과 하루 한 끼 또는 전일 금식으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합심하며 기도했다.

선교회는 기도회 기간에 모금된 특별헌금 중 2억7000만원으로 건강식품, 비타민 등으로 구성된 '라이트하우스 사랑의 박스' 1000개를 제작해 고아와 과부, 홀사모, 탈북민, 선교사 가정에 전달할 예정이다. 선교회는 소외계층을 지속적으로 섬기기 위해 사단법인 '요셉의 창고'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선교회가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과 함께 진행한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에 모금된 3억5000만원은 15일부터 전국 1000대 버스와 택시, 5만대의 자동차를 통해 진행되는 복음 광고 프로젝트에 전액 사용된다. 또 탈북민단체 지원에 1000만원, 탈북민 구출지원에 3200만원, 선교사 지원에 3000만원,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영화를 제작한 윤학렬 감독팀에 500만원을 지원했다.

선교회는 지난 4차 기도회부터 에티오피아 기독교 유대인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돕는 일리야 운동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모금된 특별헌금 3억원은 다음 달 에티오피아 기독교 유대인의 이스라엘 정착 비용으로 사용된다.

선교회는 지난달 2일 기도회 강사로 나선 오창화 전국입양가족연대 대표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린 뒤 80건의 입양이 신청됐다고 밝혔다. 차 선교사는 "지난해 전국입양가족연대에서 160건의 입양이 진행됐는데 기도회를 통해 많은 이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참여해 주셨다"고 설명했다.

기도회를 통해 예배를 회복한 중보자들은 가정과 일터, 인간관계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선교회 홈페이지 '은혜 나눔 게시판'에는 687개 간증물이 게시됐다.

차 선교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힘겨운 삶 가운데 절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간 것이 올해 경험한 가장 큰 축복"이라며 "내년에도 기도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일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비혼출산, 생명윤리 파괴·가족 해체 부를 수도"

기독교생명윤리협 등 '긴급진단' 포럼…다양 관점서 분석

'비혼출산'은 생식의료 상업화, 여성의 임신도구화 등 심각한 생명윤리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혼출산 논란은 방송인 사유리씨가 일본에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한 사실을 알린 뒤 본격화됐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와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는 11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비혼출산 문제점 긴급진단' 포럼을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비혼출산의 문제점을 신학, 법률, 여성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인 총신대 신학대학원 이상원 교수는 신학적 측면에서 접근했다. 이 교수는 "사유리씨가 개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택한 시험관 수정방식은 윤리적 함정이 숨어 있다"고 밝혔다. 함정으로 꼽은 건 시험관 수정의 높은 실패율이다. 시험관 수정의 실패는 생명인 배아 파괴를 의미하는데 기독교생명윤리 관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난자 채취과정에서 여성의 신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 교수는 또 "결혼에 대한 오해, 가족 해체를 초래하고 정자와 난자, 아기를 매매의 대상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비혼출산을 허용하면 발생할 심각한 문제를 진지한 토의도 거치지 않고 법제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재진 교수는 법률적 측면에서 발제했다. 명 교수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은 상업적인 생식세포의 거래를 금지하고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모자보건법'도 부부의 난임치료를 위해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정하도록 했다. 비혼의 보조생식술은 국내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한산부인과학회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은 비혼여성에 대한 보조생식술을 규제하고 있다"면서 "여성의 임신도구화로 인한 인격권 침해, 대리모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규제가 유지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생명윤리학회 고문인 박상은 샘병원 미션원장은 생식의료의 상업화를 우려했다. 정자와 난자는 거래되고 유전자 편집과 조작을 통해 소위 '맞춤 아기'를 가지려는 비혼 남녀도 많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사유리씨 사정은 안타깝지만 생명의 존엄성과 가정 해체 등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 연구소장인 현숙경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는 "젠더 이데올로기는 남녀 결합으로 이뤄지는 가족의 형태를 전면 부정하게 만들었다"면서 "저출산 해결책으로 비혼출산을 제시하는 상황까지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토요칼럼

김한맥 선교사
(문화동원연구소 대표)

정의(正義)

정의를 국어사전에서는 사회나 공동체를 위한 옳고 바른 도리라고 설명한다. 다른 곳에서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말하기도 한다. 덧붙인 설명을 보면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이 공정하고 올바른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는 가치로 대부분의 법이 포함되는 이념으로 보기도 한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옳고 바름을 나타내는 단어가 정의(正義)로 이해된다.

옳고 바름에 대한 설명은 사람에 따라 또 그 상황에 따라 주관적으로도 객관적으로도 매우 다양할 것이다. 다만 정의에서 절대로 필요한 조건은 사랑이 아닐까 싶다. 정의에 있어 사랑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말이다. 고전 13장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것도 아니요"로 시작한다.

여기까지는 신앙의 영역이라 사회적 정의와 거리가 멀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전13:3)며 사랑과 희생이 사회적 정의의 진수임을 설명한다. 그 대상도 분명히 소개한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신10:18),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신14:29), "네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은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와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신24:20-21)고 명령한다. 고아와 과부와 객은 사회적 약자들이다. 천하 만물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지 않는 처사며 인색을 넘어 불의(不義)임을 질책한다.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사야의 예언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옳고 바름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나타내셨다.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이 지구촌을 강타했다. 시간이 갈수록 그 여세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가 이제는 두려움을 넘어 공포가 되어 어디에서도 평화와 안녕을 말하는 것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인종과 국경을 초월한 글로벌이 기회며 상생의 대명사로 떠오르던 세계였으나 코로나19 앞에서 세계는 단절되고 집안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이타(利他)가 아닌 이기(利己)만이 살길이라며 굳게 잡았던 손들을 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 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칠천 명을 남겨 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롬11:2-5)는 말씀에 유의하자. 의사와 간호사라는 그 이름에 담긴 사명으로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일선에서 바이러스와 생사를 걸고 싸우는 의료진이 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방역 팀과 밤잠을 설치며 소임을 다하는 담당자들도 있다. 전염에 노출되었을 때 기꺼이 격리되며 지침을 준수하는 국민도 있다. 이런 모든 참여와 사명이 덕분에를 만들어 냈다. 그 어떤 단어보다 더 아름다고 의로우며 당당한 이름 덕분에가 탄생했다. 덕분에의 주인공들인 칠천 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흑인보다 더 우월하다고 백인은 우쭐할 수 없다. 한국보다 미국이 더 잘 산다고 으스댈 수도 없다.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귀천은 결코 차별이 아니다. 그저 다른 차이일 따름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는 아담과 하와였다. 피부색이 다르고 환경과 문화가 달라도 모두 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은 사랑이 전제된 사마리아인의 정의가 팬데믹이 되어야 한다. 동서양의 구분이 없고 신구세대의 구별도 없이 서로를 향해 덕분에를 외치는 팬데믹이 시작되어야 한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신 뜻을 이 땅에서 이루는 것은 약자들을 위한 정의며 진리에 맞는 옳고 바름을 향한 덕분에의 존중이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불꽃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 그런 하나님의 눈에 이 세상의 무엇이 보일지가 정령 두렵다. 어디에도 사랑이 전제된 정의가 없다면 이 세상은 노아의 시대가 될 수도 있다.

hanmackim@hanmail.net

선교의 창 (160)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환란 시에도 돌파할 수 있는 미션 패러다임

2020 경자년이 저물어가고 있다. 금년은 코로나로 시작해 코로나로 끝나는 셈이다. 21세기 인류가 역병에 휘둘릴 줄이야 그 누가 알았을까? 상전벽해(桑田碧)처럼 달라진 세상에서 선교는 직격탄을 맞았다. 많은 선교사들이 본국으로 철수했는가 하면 남아 있는 사람도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급격한 선교환경의 변화에 우리는 당황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현상이 지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지난 2천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은 평안할 때보다도 격동적일 때가 많았다. 환란,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칼의 위험이 끊임없이 엄습했다. 그러할 때마다 인간은 힘들어 했고 교회는 움츠려들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선교의 영이다. 이는 결코 세상의 도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민심이 흉용할 때 선교가 들불처럼 번졌던 간증도 있다. 초대교회와 중국의 가정교회가 대표적이다. 이들 교회는 인위적인 Sodality보다 자연적인 Modality적 흐름을 탔다. 그 결과 인동초처럼 온갖 시련을 이겼으며 놀라게 부흥했다. 따라서 코로나로 위협받은 이 때 우리도 저들 교회를 교훈삼아 선교 패러다임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1. 초대교회의 강인함

사도-속사도-교부들 중심으로 내려온 초대교회는 로마제국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다. 저들 초대교인들은 콜로세움에서 맹수의 밥이 되었으며 길거리에서 참수형을 당하기도 하였다.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의 황제나 메시아 되신 구세주 중 하나를 택해야만 했다. 만일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자라면 생명을 담보해야만 했다. 따라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을 상징하는 물고기 형상으로 서로를 알아보았으며 카타콤이라는 무덤 속에서 예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 참으로 거대한 제국 앞에 교회는 겨자씨처럼 보이지도 아니했다. 아니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존재였다.

헌데 신비한 일이 일어났다. 세상 권세에 힘없이 밟히고 찢기던 교회가 죽기는커녕 야생초 같은 생명력과 함께 로마를 영적으로 정복해 나갔다. 마침내 AD313년에는 세상의 왕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2. 중국 가정교회의 부흥

1949년 10월 1일, 대륙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유물론적 견지에서 종교를 아편과 같이 취급했다. 그 시조는 칼 마르크스(Karl Marx)이다. 그는 "종교는 억압받는 피조물들의 한숨이며 인민의 아편이다. 인민에게 환상적 행복인 종교를 폐지하는 것은 인민의 진정한 행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정부는 선교사들을 추방했다. 중국에 발을 딛는 최초 개신교 선교사는 로버트 모리슨(Robert Morrison)이다. 그는 1807년부터 25년간 사역했다. 그 이후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중국에 헌신했다. 많은 이가 순교했으며 피와 땀과 눈물로 교회를 개척했다. 그 결과 80-90만 명의 신자들이 생겨났다.

자식을 두고 떠난 어미처럼 추방당한 선교사들은 걱정했다. "이제 복음의 씨가 말라 없어지겠구나. 누가 저들을 목양한단 말인가?" 그런데 반세기 후인 1989년 통계를 보니 8천만-9천만 명으로 신도들이 늘어났다. 100배로 증가한 것이다. 아니 선교사, 목회자, 신학교, 예배당, 교육 프로그램도 없던 그곳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가? 더구나 문화대혁명(1966-1976)으로 가정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지 않았는가?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적이 나타난 것이다.

3. 유대인의 말씀전수

익히 아는 바 이스라엘 족속은 나라 없이 2천년 동안 이방 땅을 전전하며 살아왔다. 저들은 이민족으로부터 수많은 박해를 받아왔다. 중세의 흑사병과 십자군전쟁 시 집단으로 희생되었다. 근대의 포그롬(Pogroms, 대박해)과 홀로코스트는 유대인을 악의 원흉으로 이데올로기화하여 증오가 폭력으로 분출된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저들은 도처에서 반유대주의 경향으로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살해당했다.

보통 한 족속이 이방에서 유랑하며 100년 정도만 핍박을 받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거나 동화되기 마련이다. 한 예로 우리 한국은 36년 동안 일본에 압제를 받았다. 우리는 주권을 빼앗겼지만 땅과 백성이 있었다. 그러함에도 언어와 창씨개명 등 민족의 정체성이 위협받았다. 이에 비하면 유대인의 생존 본능은 놀라울 수밖에 없다.

저들은 어떻게 터전도 없이 오랜 세월을 더부살이하면서도 민족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니체 살아남았을까? 특별히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4천년간이나 말씀을 자자손손 전수할 수 있었을까? 우리 기독교는 교육신학과 선교적 측면에서 저들의 노하우를 배울 필요가 있다.

4. 외적 환경을 이긴 믿음의 공동체

영국의 정치학자이자 역사가인 에드워드 핼릿 "테드" 카(Edward Hallett Ted Carr)는 역사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했다. 역사 속에 보화가 있다는 말이다. 그것을 캐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 이미 살펴본바 초대교회에서는 겨자씨만도 못한 교회가 300년 만에 압제의 화신인 로마제국의 주류세력으로 확산되었다. 중국의 가정교회에서는 반세기만에 100배로 증가했다. 이스라엘 민족은 외세의 모진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4천년간이나 자자손손 말씀이 대물림하였다. 이러한 사례의 승리비결은 무엇인가?

첫째, 혈연과 지연 중심의 모임을 지향했다. 생활공동체와 예배공동체가 하나로 묶어진 것이다. 낯선 이웃은 아무리 친해도 이웃일 뿐이다. 더 이상 같이 할 수 없는 한계선이 있다는 말이다. 둘째, 계급 없이 구성원 모두가 주체였다. 함께 결정하고 책임을 공유했다. 그곳에는 피동성이 없었다. 셋째, 신앙과 생활이 일원화되었다. 사도행전2장 말씀처럼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삶을 공유했다. 넷째, 본질에 집중했다. 모아진 힘을 건물에 투자하지 않았다. 오직 말씀과 기도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며 형제애를 발휘하는데 사용했다. 다섯째, 누룩처럼 번식했다. 안전상 소수로 모임을 가졌으며 숫자가 많아지면 스스로 분가했다.

5. 생각해보아야 할 주된 쟁점(Issue)

"소크라테스형, 세상이 왜 이래? 사는 것이 왜 이리 힘들어" 가수 나훈아가 금년 추석특집 가운데 불러 히트 쳤던 곡의 가사다. 일반 생활도 이럴진대 목회와 선교는 어떠할까? 그러나 우리 시대가 코로나로 묶이고 활동이 제한받는다 할지라도 2천년전 초대교회시대나 문화대혁명 때의 중국의 가정교회 상황과 비교할 수 없다. 저들은 도대체 어떻게 처절한 환경을 극복해냈는가? 그 주된 원인은 인위적인 Sodality보다 혈연과 지연중심의 Modality적 공동체를 예배공동체로 승화시켰기 때문이다.

이는 오늘 우리 사역 현장과 대비된다. 생활은 가족중심으로, 신앙은 이웃중심으로 엮어져 있다. 또한 교회 안에 목회자와 평신도라는 강이 흐르고 있다. 모두가 사역의 주체가 되도 힘이 모자랄 판에 절대 다수인 성도들은 그저 부분적으로 협력하며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격이다. 주의 나라 확장은 대표선수 격인 사역자 몇 명으로 될 일이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본질적인 사역보다 건축이나 여러 행사 등 비 본질적인 일에 너무 에서지를 소진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몸에 밴 선교적 패러다임이 깨지지 않는 한 결코 초대교회와 같은 힘을 드러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교는 세상의 도전을 뛰어 넘어 왔다.
교회는 선교의 영이 운행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선교는 Sodality 보다 Modality적 흐름을 탈 때 생명력이 더하다.

맺음 말

생명이란 무섭다. 동토를 뚫고 나오는 봄의 새싹을 보라. 복음역사는 굴절은 있을지언정 결코 단절은 없다. 우리는 그 증거를 역사 속에서 살펴보았다. COVID19 영향으로 모든 것이 난관에 부딪쳐 있는 지금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심각히 고려해봐야 한다. 추후 이보다 더한 환란과 박해가 오지 말란 법이 없다. 하나님의 선교는 시대환경을 불문하고 도도히 흘러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역사 속에서 이미 검증된 산 교훈을 얻어야 한다. 그것은 인위적인 Sodality보다 자연적인 Modality적 영성공동체를 일으켜 세우는 것이다. 물량주의를 배격하고 본질에 충실하며 모든 구성원들을 은사에 따라 사역을 감당하도록 동원하는 일이다. 여호와 닛시!

jrsong007@hanmail.net

드라마 예언서 (13)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에스겔서: 전반부-우상숭배로 인한 '성전의 무너짐' 후반부-무너진 '성전의 재건' 약속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읽은 예레미야서와 다니엘서에 이어서 에스겔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의 배경

에스겔은 BC 598년, 느부갓네살에 의해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에스겔은바벨론 땅에서 남방유다의 멸망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과 동시대를 살면서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다니엘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에스겔과 다니엘은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남방유다가 망하고 난후, "망했으니까 이제는 끝인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대답해 주십니다. 그 대답은 "내 나라는 끝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내가 반드시 역사 속에서 다시 재건할 것이다"입니다.

에스겔서의 두 가지 이슈는 '성전의 무너짐'과 '성전의 재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통치의 좌소이며,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는 가시적인 증거 혹은 상징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느부갓네살과 그의 부하인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성전이 허물어지고 불에 탔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거룩한 그릇들을 모두 빼앗겼습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아!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를 떠났구나! 이제 우리는 망했구나'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었던 것이죠(예레미야의 예언).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해주실 것을 말씀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의 내용입니다.

에스겔서의 내용

에스겔서는 전반부(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와 후반부(무너진 성전을 재건해주시겠다는 약속)로 나누어서 읽으면 쉽습니다. 전반부와 후반부가 나누어지는 부분은 '겔33:21' 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열두째 해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아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즉, 남방유다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던 그날에 대한 기록을 기준으로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전반부: '성전의 무너짐'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이며 제사장입니다. 그는 여호야긴 왕이 잡혀온 지 5년 째 되던 해(BC 593)에 30살이었고, 바벨론 그발강 가에서 하나님의 모습과 음성을 처음으로 보고 들었습니다(겔1:1-3).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후에(겔1:4-28) 패역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에스겔을 부르시며 애통과 재앙의 말이 적힌 두루마리 책을 먹이셨습니다(겔2장). 에스겔이 받은 사명은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겔3장).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흙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의 모형을 제작하고, 그 모형의 둘레에 적군의 포위망을 둘러싸고, 적군의 요새와 캠프 그리고 성문을 부수는 무기도 만들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겔4:1-3).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처럼 예루살렘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머리털과 수염을 잘라서 불태우고, 칼로 치고, 바람에 날려 보내라고 하십니다. 잘린 머리털과 수염처럼 유다는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겔5장). 심판의 이유는 우상숭배입니다. 심판의 날은 곧 올 것입니다(겔6-7장). 유다의 우상숭배 모습을 환상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성전 안에는 각종 우상들이 가득 했고, 장로들뿐만 아니라 여인들까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습니다(겔8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진 노를 쏟으신 후에 성전을 떠나십니다(겔9-10장). 그러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백성들의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겔11장).

멸망의 징조를 에스겔의 행동으로 보이게 하시고,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십니다(겔12-13장). 에스겔은 자신에게 찾아온 장로들에게 우상숭배를 중단할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하는 쓸모없는 포도나무를 땔감으로 태우는 것처럼, 예루살렘도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겔14-15장). 독수리와 씨앗, 신포도, 암사자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오홀라'와'오홀리바'처럼 음란하여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고기가 담긴 가마솥이 다 타서 없어지는 것처럼 완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심판의 아픔을 에스겔은 아내가 죽는 것으로 경험합니다(겔16-24장). 남방유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암몬, 모압과 세일, 에돔과 블레셋, 두로와 시돈, 애굽까지 심판하실 것입니다(겔25-32장). 결국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며 유다는 멸망합니다(겔33:21).

후반부: '성전의 재건'

하나님께서는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겔34장).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율례와 규례)을 지켜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겔36장).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주실 것을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겔37장).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과 구원은 '성전재건'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루살렘성전의 설계도를 에스겔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마치 모세에게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신 것처럼 말입니다(겔40-42장).

측량된 대로 성전이 완공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재합니다. 성전의 동문을 통하여 들어간 하나님의 영광이(cf. 겔10장에서는 성전 동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온 성전에 가득하게 됩니다(겔43장). 재건될 성전의 규례들을 말씀하신 후에(겔44-46장)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회복의 환상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닿는 곳곳이 되살아 납니다. 그 강가에는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는데, 열매는 음식으로 공급되고 잎사귀는 치료하는 약재료가 됩니다(겔47장). 마치 요한계시록22장의 생명나무를 보는 듯합니다.

회복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받고 거주하게 됩니다. 그들이 거주하게 될 정사각형 모양의 큰 성읍둘레에 12개의 문(12 gates)을 만들고, 그 문들의 이름을 각각 12지파의 이름으로 부르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삼마'라고 부르게 될 것입니다(겔48장). '여호와삼마'의 뜻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The LORD IS THERE)'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지만, 온 세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다니엘서의 메시지) 그들에게 내리신 징계기간이 끝나면(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70년) 성전을 재건시켜주시며 그들과 함께 하실 것(여호와삼마)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신 '성전재건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을 학개서와 스가랴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jameshur63@hotmail.com

월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시7:6-10)

다윗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대적하는 원수가 있음을 마음 깊이 깨닫고 이 세상에서 피할 곳은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돼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함을 당할 때도 사람과 원수를 맺지 않고 사람에게 묶이지 아니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저희들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해도 사람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을 갖고 기도할 때 더욱 든든한 확신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피할 곳은 주님밖에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기도하는 성도가 가장 복된 성도입니다.

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시7:11-17)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세상 사람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자신의 욕심을 위해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깨닫고 기도할 때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향해 매일 분노하십니다(11). 둘째,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칼을 가십니다(12, 13). 셋째, 악인은 자기가 만든 웅덩이와 함정에 빠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같은 죄인을 의인 삼아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잘못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주시고 나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시8:1-2)

시8편은 경이로운 자연의 조화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격해 찬양드리는 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주만물의 조화를 보고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우주만물 자연의 조화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이 왜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높이 들어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평생을 살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능력 있는 사람도 많고 힘 있는 사람도 많았는데 그 때마다 신비스럽게 힘센 원수들과 대적들을 잠잠하게 하시고 어린 아이같이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크게 쓰시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목 사람이 무엇이관대(시8:3-4)

시8편에서 다윗은 3000년전 과학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서도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고" 인생을 생각하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시8편의 핵심 단어는 3절 "내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묵상하다, 심사숙고하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깊은 관심을 갖고 자연을 바라보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너무 아름답고 웅장하고 위대한 피조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깊이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관대 이 천하고 허물 많은 나를 잊지 않고 생각해주시고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사랑을 베풀어주시냐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금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시8:5)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대적과 수많은 위험 속에서도 그는 늘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은 늘 그의 시선과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늘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만물 별들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됐기 때문입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만 특별히 지극히 높여주신 것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뜻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뜻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창조하신 자연에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칭찬하실 것이 많은데 나 같은 죄인을 생각해주시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시8:5-9)

다윗은 하늘의 달과 별들과 우주의 아름다움과 자신을 비교해볼 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우리를 지극히 높이신 것에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영화와 존귀"로 관을 이미 씌우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지극히 높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뜻입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이 범죄함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이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주님 안에서 다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극히 높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알기쉬운 IT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카톡으로 투표하기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던 강원도에서 6개월째 살고 있습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주민등록상으로도 강원도민입니다. 강원도는 늘 놀러 가는 곳이었습니다. 대학을 다닐 때까지도 동해바다를 보려면 강릉 가는 기차를 타고 10시간은 가야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가 생긴 때가 1980년대 초라고 기억되는데 그 긴 기차여행은 낭만 그 자체였습니다. 하긴 그 나이엔 어딜 가든지 낭만이었겠지만…

불과 40년 만에 강릉은 두 시간의 하루 생활권이 되었습니다. 청량리 역에서 KTX를 타면 1시간 40분이면 됩니다. 강릉에서 맛있는 점심을 먹고 바닷가를 구경하고 서울에서 저녁을 먹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나와 KTX 강릉선은 처음 타 봤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원주까지 짧은 구간이었지만 유난히 옛 추억을 많이 간직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추억이 아날로그라면 그 기억을 간직하는 방법이 디지털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Digital을 잘 이용하면 훨씬 더 큰 감동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부문에서 Digital을 활용하고 있기에 여기서 뒤처지면 안 됩니다. 바로 여러분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을 더 잘 사용하셔서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최고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백신이 속속 개발되고 있고 빠르면 다음 달부터 투약이 시작된다고 하지만 적어도 내년 여름은 되어야 안심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회생활을 안 할 수는 없기에 비대면 사회에 꼭 필요한 방법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임원 뽑기

연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모임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장을 비롯한 임원을 뽑을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Zoom과 같은 화상회의를 통해 온라인 모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회의에서 회장을 뽑기는 불편합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카톡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기능은 단체방에서 하는 것인데 일반 단체방에서도 오픈방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럼 먼저 회장을 선출하는 투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능은 단체방에서만 가능합니다.

단체방을 엽니다. 오른쪽 위의 삼선(빨래판)을 누릅니다. 가운데 투표를 선택합니다. 투표 올리기를 누릅니다. 공지란에 공지 내용을 올립니다. 투표 제목에는 회장 선거라고 입력합니다.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항목입력란에는 회장 후보자를 입력합니다. 만일 후보자가 3명이 넘으면 아래 항목추가를 눌러 항목을 늘립니다. 마감 시간을 설정합니다. 물론 마감 전에 모두 투표가 끝나면 바로 투표종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복수 선택은 1인 1표가 아니라 1인이 여러 사람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익명투표는 무기명투표로 할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위의 완료를 누르면 투표가 완성됩니다. 이제 단체방에 공고된 투표를 개인이 하면 됩니다. 투표종료 시각이 지나면 자동으로 투표가 종료되고 당선자가 자동으로 공고됩니다.

이를 잘 이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 최다득표자를 회장으로, 차점자를 부회장으로 선출할 수도 있습니다.

메뉴결정, 장소선택 등 다양

이 투표방법은 회장 선거에 사용하는 그것뿐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식의 메뉴를 결정할 수도 있고 여행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쟁점이 되는 문제를 투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가 아니라 날짜를 선택하면 더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사회에서 Zoom 미팅할 날짜를 정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날짜를 투표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로 결정되는 것은 잘 따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의 손에 스마트폰이 들려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그 스마트폰을 스마트하게 사용하는 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나만 그러면 문제인데 주위를 보니 다 그런 것 같아 안심하고 계시나요? 사실 iT는 나 혼자 잘한다고 멋진 것이 아닙니다. 주위가 다 잘해야 모두가 편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은 잘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런 투표는 단체방에서 한번 해보면 누구나 관심을 끌게 되고 실제 해보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도 적용해보는 것이고 이렇게 모두가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투표는 교회에서도 아주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비대면 사회에서는 더욱 유용한 Tool입니다. 카카오톡 잘 사용하고 계신다고요? 사실 카톡에는 숨어있는 좋은 기능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것을 잘 사용할 수 있을 때에야 진정으로 잘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sjyoon7231@gmail.com

오늘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선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가 된 산상수훈에서 그 방향을 찾아보라!

산상수훈
登山宝训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표 基督徒的人生指标

신국판 | 한중 합본

강기봉 목사
평신도 선교사로 미국에 파송
Biblical Theological Seminary(현 Missio Seminary, Hatfield,PA)
한국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뉴욕백민교회 개척
뉴욕백민교회 원로목사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교수
저서 하나님의 사람 사람의 사람(칼럼집)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사도행전 강해설교)
문의 kangkibong@hotmail.com

구입문의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NY) 323-665-0009(LA)
히즈핑거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 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입니다.

30년 선교이야기(1)

올해 12월은 저희 부부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30년 전 1990년 12월 1일에 아르헨티나 선교사로 파송 받았습니다. 30년 선교사역을 요약해 본다면 (1)코스타리카 스페인어 언어 훈련 (2)아르헨티나 목회자훈련 사역 (3)현지인 교회개척 사역, 그리고 미국에 돌아온 이후 (4)SEED 선교회 사역 (5)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훈련 사역 (6)스페인 교회개척 운동 (7)LA미주복음방송과 하와이 글로벌복음방송을 통한 방송사역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30년이란 세월에 하나님께서는 일곱 가지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섯 가지 사역은 후임자들에 의해 계속되고 있고 지금 제가 섬기는 사역은 SEED선교회와 글로벌복음방송 두 가지입니다. 사역 하나 하나를 돌아보면, 어떻게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을까, 놀랍고 신기하게 느껴집니다.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런 일을 다시 시작하라고 한다면 저는 전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1)아르헨티나 교회개척 사역(1990-1995)

일곱 가지 사역 중에 한 가지만 나누어 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교회개척 사역입니다. 코스타리카에서 일년간 스페인어를 배운 후에 아르헨티나로 가서 목회자 훈련원을 설립하고 교회를 개척한다는 선교계획을 세웠습니다. 일 년 동안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기도 어려운데 겨우 배운 스페인어로 강의를 하고 매 주일 설교를 하겠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깨려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년 언어훈련 후에 아르헨티나에 부임하여 4년 동안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목회자훈련원을 설립하였고 지방 도시 멘도사에 교회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자랑하기 위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4년 동안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난 일들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었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아르헨티나에 도착한 지 4개월이 되었을 때 목회자훈련원을 개원했습니다. 매주 열린 목회자 세미나에 50명이 넘는

2016년 9월에 아르헨티나 교회를 20년 만에 방문하였습니다. 자체적으로 건축한 교회당과 에두아르도 목사님 부부.

목사님들과 평신도 리더들이 모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지방 도시에 2박3일 목회자수련회를 열었습니다. 목회자 훈련원에 등록한 회원들이 전국적으로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만큼 신학교육이 부족했던 아르헨티나 목회자들이 말씀에 갈급했던 시절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스페인어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현지인들의 말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교회개척의 열망을 주셨습니다. 마침내 수도에서 1200킬로 떨어진 멘도사라는 도시 중산층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이사를 했습니다.

미국을 떠날 때 두 살, 네 살이었던 아이들은 다섯 살, 일곱 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에 아내와 저는 노방전도에 나섰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전도를 해서 믿는 사람이 생겨야 했고 전도를 하려면 길거리로 나가야만 했습니다. 공원에서 또 대학캠퍼스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4개월간 한 명의 결신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주일이 되면 우리 네 식구는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웃집이 있었습니다. 동네에 유일한 동양인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는지 남편과 아내가 번갈아가며 날마다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때 부모를 따라 시리아에서 아르헨티나로 이민을 왔습니다. 가끔 아랍어로 알라신에게 기도를 하기도 했지만 신실한 무슬림은 아니었습니다. 아내는 캐톨릭이었습니다. 남편이 먼저 예수님을 영접했고 곧 이어 아내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와 함께 교회당으로 사용할 장소를 임대하여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동안 전도했던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교제했던 20대 젊은 부부가 연락이 왔습니다. 둘 다 교회에서 잘 섬기는 좋은 일꾼입니다. 남편은 유스 그룹, 부인은 주일학교 디렉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 멘도사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려면 아르헨티나 사람인 자기들이 가야할 텐데, 자기들보다 스페인어를 못하는 꼬레아노 선교사가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멘도사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후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그래서 멘도사로 이사를 와서 교회개척을 돕겠다는 것입니다.

교회개척과 동시에 이 부부가 아이들을 데리고 멘도사로

왔습니다. 신학을 공부하면서 교회를 함께 섬겼습니다. 이 부부가 바로 저를 이어 지금까지 25년간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에두아르도 목사님과 크리스티나 사모님입니다. 교회는 성장하여 자체적으로 교회당 건물을 건축하고 선교사 세 가정을 파송할 만큼 선교에 열정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창립 1주년 예배를 드리고 저희는 아르헨티나를 떠나야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제가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살던 그 집을 렌트하기를 잘 했지? 첫 열매가 바로 이웃에 살던 나데르 부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그 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신욱아, 너는 그 집을 렌트하기를 원하지 않았지? 어쩔 수 없이 그 집으로 간 것을 기억하지 못하니? 내가 나데르 부부 구원을 위해 너를 그 집으로 인도한 것이란다."

정말 그랬습니다. 돌아보니 첫 열매 나데르 부부도, 교회를 이어 받은 에두아르도 부부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한 것뿐이었습니다.

어떤 사역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무슨 일이든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때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0년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기도와 사랑을 부어주신 분들과 후원해주신 교회들이 일일이 감사를 표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저희는 가서 살고 일했지만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셨고 교회와 성도들의 희생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사역들을 돌아보며 기도와 멘토링으로 도와야 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기도제목

1. SEED선교회가 교회가 함께 선교하고 선교사들이 함께 선교하는 선교공동체로 세워지도록
2. GBS 글로벌복음방송이 한인디아스포라와 열방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방송이 되도록
3. ICTC 훈련원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선교사를 양성하는 훈련공동체로 세워지도록
4. 스페인에 교회개척운동이 일어나도록
5. 아내가 제작하고 있는 "Journey with Jesus" 애니메이션을 성령님의 도움으로 완성하도록
6. 모세와 사라, 두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군의 가정을 이루도록

이제는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사모할 때입니다.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마지막 때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남은 생애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새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박신욱 유혜숙 드림
pastorjuan@gmail.com

선교 편지

나카라과

11월의 섬김과 나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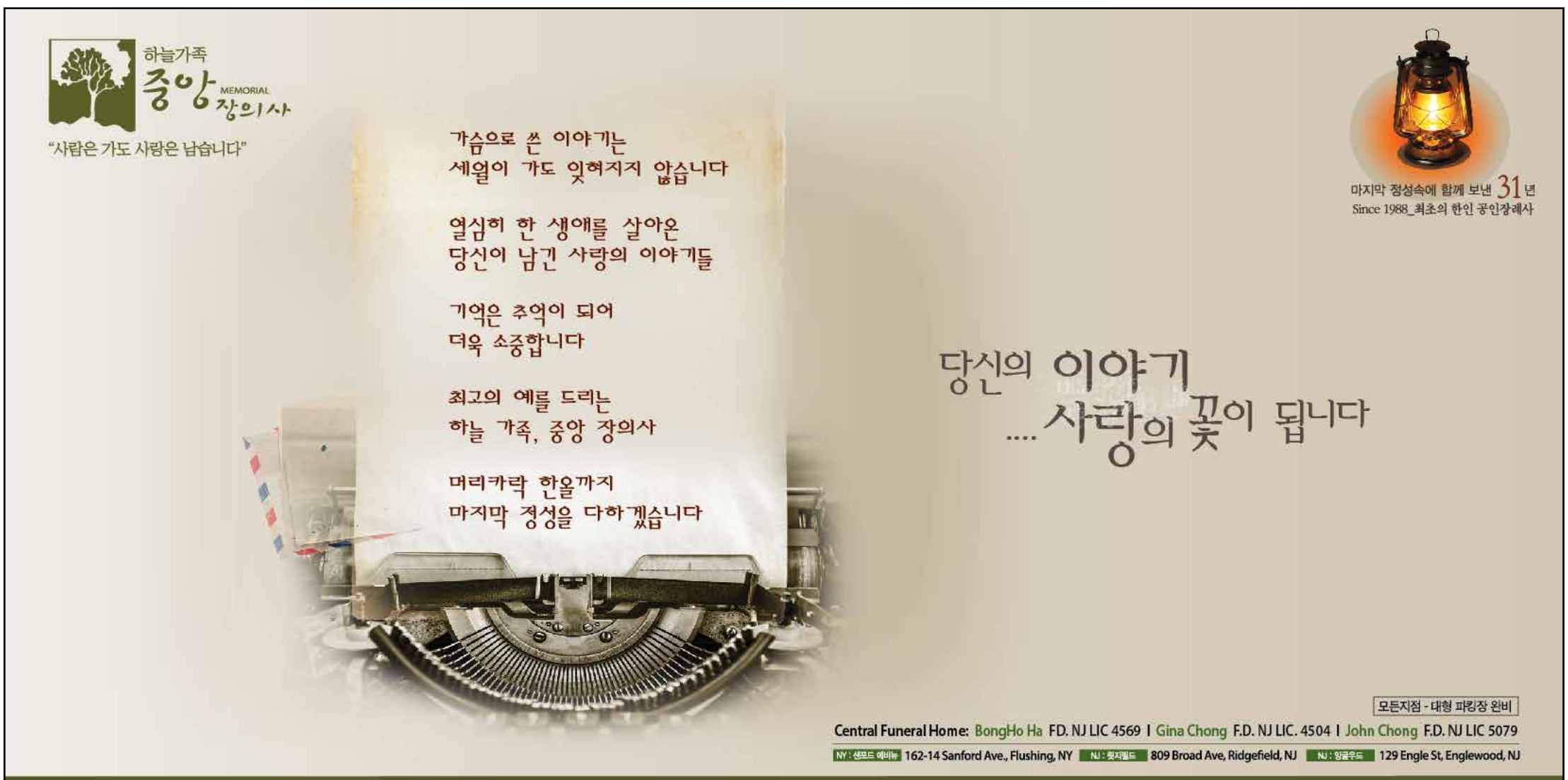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감히 예측할 수가 없답니다. 이 달에는 또 어떤 손길을 통해 필요한 이들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지난 2017년 니카라과에 처음으로 단기 선교 오셨던 남가주 동신교회 단기팀원들 몇 분이 모은 사랑과 2018년 니카라과 전도대회에 참여하셨던 뉴저지 2618선교회 유재도, 유영숙 선교사 가정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아 의미있는 섬김으로, 2020년 니카라과 전도대회에 참여하셨던 Kate Choi 자매의 사랑이 모아져서 11월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10시 30분 마사야제일장로교회에서 나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올해 11월은 허리케인 에타와 요타가 보름 간격으로 카리브해 북부를 중심으로 니카라과에 상륙하여 전국을 물바다로 만들었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 사역지에도 피해를 입어 여러 선교사들이 마음을 모아서 돕고 있습니다.

제가 개척한 18장로교회에도 태풍에 피해를 입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수해를 입은 가정들과 일자리를 잃고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을 포함하여 모두 101가정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니카라과에서 이동홍 드림
missionnica21@gmail.com



성탄 축하 광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4

TVNEXT
(Traditional Values for Next Generations)
*다음세대를 위한 가치관 보호
– 올바른 정체성 정립
– 올바른 세계관 정립
– 올바른 가치관 정립
– 기독교 사회문화 형성
공동대표: 김태오 목사/새라김 사모
http://tvnext.org
tvnext.org@gmail.com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el. (714)521-0991
Cell.(714)521-4636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Tel. (323)913-4499
Fax.(323)913-4494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김현인
1645 Beverly Bl.
L.A., CA 90026
Tel. (213)481-2779
Fax.(213)481-3761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Tel. (714)772-7777
Fax.(714)772-0777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2408 5th St.,
East Meadow, NY 11554
Tel. (516)520-2004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신욱
12-25 Clintonville St.
Whitheston NY11357
Tel. (718)361-9199
Fax.(718)361-943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295-7987
Fax.(516)883-1961

뉴욕제자들교회
담임목사: 라융채
39-50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Tel. (718)224-1993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Tel. (201)342-9194
Fax.(201)943-5204

디아스포라선교회
대표 : 전영자 목사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Tel.(213)559-7728(전화 팩스 겸용)
Tel.(213)210-6890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융철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el. (702)579-7576
Fax.(702)257-9191

라스베가스안디옥교회
담임목사: 강준수
7635 Dean Martin Rd
La Vegas NV 89139
Tel. (702)749-9929
Fax. (702)478-7224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Tel. (917)862-0523
Fax.(718)961-3631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 최해근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Tel.(610)222-0691
Fax.(610)222-0692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el.(213)380-9377
Tel.(213)380-9079

벧엘교회
담임목사: 백신종
3165 St. Johne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Tel. (410)461-1235
Fax.(410)461-6823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풍운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Tel. (215)945-1512
Fax.(215)945-2095

빛과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장요셉
1864 Precinct Line Rd,
Hurst, TX 76054
Tel. (817)427-1020
Fax.(817)427-0110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장성철
2 Main St.
Hopkinton, MA 01748
Tel. (508)435-4579
Fax.(508)435-5467

부르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Tel. (718)265-2584
www.fkcb.org

빛과 소금의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21519 S. Menlo Ave. Torarnce CA
90502
Tel.(310)749-0577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 나성균
701 Scaleybark Rd.
Charlotte, NC 28209
Cell.(704)877-6642
Tel.(704)529-0900

세계한인 기독교 이단대책
회장:김순관목사
Tel.(808)542-2922
www.ikccah.org

성화장로교회
담임목사: 이동진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515-1191
www.sunghwachurch.org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은일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Tel.(206)527-0981
Fax.(206)524-1746

알칸사제자들교회
담임목사 : 전남수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Tel. (501)920-9049
사택:(501)425-5178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 유재일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Tel.(907)344-6446, Fax.
(907)344-3182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흥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 한세영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Tel.(703)941-4447
Fax.(703)941-4448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 배현찬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Tel. (804)560-7500
Fax.(804)560-751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Tel. (213)749-4500
Fax.(213)749-6700

코너스톤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Tel. (310)530-4040
Fax.(310)530-840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성국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040
Fax.(718)358-7789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 박장호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Tel.(253)536-6675
www.tacomacrc.com

필라한인연합교회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3416 W. 1st St.
LA., CA 90004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 이남수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Tel.(808)585-1859